

참교육과

열린교육을

생각한다

사랑은 총체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두지 않으려고 하며

그 어떠한 한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의 열정과 사랑

때로는 분노가 모두 그것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실천을 나누는 늘푸른 배움터

소외된 삶의 밝은 내일을 준비하는 낙낙한 나눔의 공간... 상록야학!



2001년도 예비교사 교육 자료집

차 례

작게 시작하여, 크게 이뤄냅시다! … 교감 최대천	2
열정들을 다시금 앞자리에 놓습니다 … 교무부장 류영조	4
하루살이 같은 마음으로…… … 교육팀장 김현희	5
2001년 예비교사 교육 일정표	7
2001 예비교사 교육자 명단	8
제1장 야학사	9
제2장 야학 연대에 대해서 … 과학교사 이상민	16
제3장 상록야학이 걸어온 길	20
제4장 상록야학 학사 운영	23
제5장 상록야학 교칙	29
제6장 야학 교사론 … 국사교사 박해원	34
제7장 교육관 … 가정교사 김자연	37
읽을거리① 고등학교 교사의 교육현실 비판	40
읽을거리② 자본주의 사회속의 교육의 한계	59
읽을거리③ 참교육실천강령	64
제8장 상록야학 속으로 들어가기 … 국어교사 안주영	65
제9장 교실수업 강의법	77
제10장 검정고시 제도 알아보기	81
토론일지1. 야학의 역사와 현재	86
토론일지2. 상록의 교사와 교육관	88
토론일지3. 상록의 조직과 교사의 업무	91
참관수업 일지1-5	95
모의수업 일지1-3	101
참고1 교무부 조직표	104
참고2. 교사회의안	105
참고3. 교무일지	106
참고4. 수업시간표	107
참고5. 교과목 강의평가서(교사용)	108
참고6. 교과목 강의평가서(학생용)	109
참고7. 야학팀방일지	110
참고8. 현직교사 주소록	111
시(詩) 그림자 … 국어교사 이윤희	112

작게 시작하여, 크게 이뤄냅시다!

교감 최대천

태양이 이글거리는 7월이 되면 저의 마음엔 온통 고마움·아쉬움·야속함·설레임으로 가득차곤 합니다.

땅에 넘어져도 또 다시 땅을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자랑스런 상록의 졸업생들과 나의 조그마한 일부이나마 이웃에게 나눠줘야겠다는 소박한 의무감으로 목이 터져라 열심이신 동료교사들에게 넘쳐나는 고마움은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삶이 주는 무게에 힘겨워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도 어렵사리 두드린 배움의 문, 상록을 뒤로하고 올며 떠나야만 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좀더 세심하게 마음써 주지 못하고 따스한 손길로 어둬 만져주지 못한 아쉬움과 처음엔 그렇게도 의욕에 넘치던 일부 신입·기존교사들이 시간이 갈수록 교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종도에 떠나거나 무성의 한 수업과 결강-특히 무단결강-으로 착하다니 착한 학생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례행사처럼 볼 때마다 온 몸을 서글픔으로 감싸게 합니다.

“ 지난해 보단 올핸, 무엇인가 좀더 달라져 나아지겠지 하며 배움의 터 상록학교 2001년 새학년 새학기 새학생들과 동고동락한 새내기 지원 예비교사들은 어떤 분들의 모습일까? ”라는 설레임으로 들뜨곤 합니다.

요즈음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등 가치관들이 극도로 혼란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기에도 힘겨운 때에, 배움이 절박한 바로 우리들의 형제 자매요 어머니·아버지들을 위해 달려오신 지원 예비 교사님들을 뜨겁게 환영하며 몇 가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성실한 수업입니다. “ 수업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킵시다! ”라는 문구는 개교이래 저희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황금률입니다. 학칙 제 38조(교사임무), 제 39조(교사권리)에 의하면 “ 교사는 신성불가침한 수업시간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가르침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욱 이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신입예비교사 교육의 장은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깨고 진정 훌륭한 남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키우고 자질을 시험하는 소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 수업은 절대적인 생존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비원(悲願)을 외면하고 불성실한 수업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아무런 사전 대책 없이 결강을 되풀이하시는 기존교사나 앞으로의 예비교사께서는 신성한 교사의 자리를 재

고해야 하며, 다시금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업이외의 시간에 학생과 동료교사간 인간적인 교류와 만남입니다. 상록이라는 공동체에 구성원이라면 공인으로서 조직에 최소한의 규범과 규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전달이야 그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진정 배움에 목말라 찾아온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바로 모순된 우리 사회와 부조리한 제도의 희생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의 공동체인 상록 구성원들 상호 끈끈한 정을 나누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수업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각종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매월 정기 교사회의에도 늘 나오시어 스스로 상록에 뿌리내려 아웃사이더가 아닌 진정 상록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학에서의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들이 같은 길을 가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음 합니다. 그리고 먼훗날 여기에서의 생활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되도록 겸허한 자세로 자기성찰에 게으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사자성어에서 우리 상록 가족들은 용두용두(龍頭龍頭)는 못 되어도 사미용두(蛇尾龍頭)는 꼭 되어야겠고, 결코 용두사미(龍頭蛇尾)한 불성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처음은 사소하였으나, 그 끝은 실로 장대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랑의 불을 지펴야 할 것입니다.

꿈, 이상, 사랑, 희망, 순수, 믿음, 신념, 희생, 의지, 인내, 용기, 지혜, 자유, 평등, 평화, 동경, 기쁨, 그리움, 보살핌, 나눔, 넉넉함, 따스함 들의 마음가짐으로 하찮은 것에 고귀한 생명을 불어넣고 배움에 열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의례적인 동정이나 자선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자그마한 소명이 아닐런지요?

모든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강과 바다로 뛰쳐나가는 이 찌는 듯한 무더운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묵묵히 땀흘리며 씨뿌리는 농부처럼 ‘2001 상록 신입교사’들의 옹골찬 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시는 교육담당 선생님들께 뜨거운 박수와 감사를 보내며, 오늘 출라신 구슬 땀방울은 반드시 좀더 살기 좋은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01.07.03.(화)

열정들을 다시금 앞자리에 놓습니다

교무부장 류영조

거세게 굽이치던 강물이
평화로운 어느날 눈부신 햇살을 받아 내리며
하늘에서 흘어진 인연들을 푸른 바다에서 우연처럼 만나듯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야학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 당신처럼 많은 고민을 안고
이곳에 들어 왔습니다.
10년만 열심히 해보는 거야
감당하지도 못할 가슴을 짓눌러가며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과 분노가 교차할 때마다
어쩌면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이렇게
세월만을 기다려 왔는지도 모릅니다.
기약한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소중한 기억들 만큼이나
스스로 접어 버리고 싶은 기억들을
칼날처럼 안은 채
야학 한켠에서의 마지막 잠을 청합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첫 지하철을 놓치지 않겠다고
희미한 다짐을 하면서 어지러운 생각들을 물어 둡니다.
집에 남은 식구들과 새벽에
세찬 눈보라를 맞으며 야반도주를 하던 12월의 어느날
어머니가 어린 날더러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고
내 손을 꼭 잡고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무심한 저를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던
어머니에게 맡 못할 이야기들을 이제
나의 그 두 손에 숨겨 놓습니다.
몹시 앓을 듯한 예감이 업습해올 때마다
비관적인 삶의 언저리에서 희망을 찾아 나섰던
열정들을 다시금 앞자리에 놓습니다.
오는 새로 오신 예비교사 여러분들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록가족 한분 한분 모두에게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

하루살이 칠은 마음으로.....

교육팀장 김현희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는 그 주어진 삶에 얼마나 충실했까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역시도 주어진 날이 단 24시간이라면 하루살이만큼은 열심히 불을 쫓아 살아 살겠죠?

안녕하세요. 우리 상록의 한 가족이 되신 신입교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다들 다른 이유로 상록의 문을 두드렸겠습니다 만은 그 내면의 동기는 모두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수많은 선생님들 역시 그러하겠구요.

법정 스님은 나눔을 누군가에게 끝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록이라는 곳에서 나눔이란 단어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은 상록의 영원한 화두가 아닐까요? 그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예비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것은 또 다른 인연의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상록 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한 첫 단추가 스스로에 대한 결심이었다면 교사교육은 그것의 구체적인 절차라 생각되어집니다. 신입교사 교육은 상록 교사로서의 자질을 쌓아 가는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야학이라는 조금은 특수한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해 볼 수 있는 자리이며 또한 자기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꾸밀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2001년에 있어서 야학의 모습에 대한 조금은 다퉗어진 담론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입교사 교육은 신입교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와 너, 너와 나라는 다양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자기 생각의 고찰이 아닌 서로 다른 가치관과의 악수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록 신입교사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의 지향점이 아닌가 합니다.

26년이라는 시간동안 수많은 선생님들이 여길 다녀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상록의 바닥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선생님의 명단에 저 역시 부끄러운 이름 석자를 세길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라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 선생님 역시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구요.

다른 사람과 같이 부딛히며 지낸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해보면 어떨까요? 저 역시 그렇지 못하면서 감히 이런 말을 건넵니다.

야학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회 복사 단체라고들 합니다. 다른 의견들이 많겠지만

저는 봉사의 가장 큰 가치는 자기희생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생이 없는 봉사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망설여집니다. 눈물이 없이, 고뇌가 없이 단순한 자기 만족으로 서의 봉사는 아주 잘 포장된 그럴듯한 개인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 곳에 투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전을 생각한다면 더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야학에서의 생활은 가기 경영에 있어서 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무엇을 주고 가는 것 그래서 적자가 되는 것이 깊은 의미에서의 더 큰 혁자일 것입니다. “당신은 야학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저런 것들이요.”라고 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야학은 얻고자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주는 곳입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 보다 없는 사람이 작은 것을 내놓을 때 우리는 더욱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야학에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무엇하나라도 떨어뜨리고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금상첨화겠지요.

꽃초롱 하나가 불을 밝힌다.
꽃초롱 하나로 천리 밖까지
너와 나의 사랑을 모두 밝히고
(중략)
꽃초롱 하나로 천리밖까지
눈 밝히고 분 밝히고 가야한다면

(박정만)

아주 가치 없는(?) 꽃초롱 하나로 천리 밖까지 밝힐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상록에 서의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할 역할이 아닐까요?
철없고 두서없는 교육팀장의 작은 지껄임이었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여...

armor(=^.^=!)

2001년 예비교사 교육 일정

• 교육 팀: 김현희(팀장) 편성철 김자연 박해원 류영조

날짜	제목	내용	비고
7. 7.(토) 늦은 5시	상견례	교육일정 소개 상록야학 소개	
7. 14.(토) 늦은 5시	토론 야학의 역사 야학연대 상록야학	야학의 과거와 현재 상록야학의 역사 상록 학사일정 상록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7. 21.(토) 늦은 5시	토론 야학교사론 교육관 참교육	야학교사로서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할 것인가 올바른 교육관·참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기	
7. 28.(토) 늦은 5시	토론 상록 교육의 현실 인식 대안교육	비디오감상 토론(창의력, 감성교육) 학생, 교과과정, 수업, 교사, 행사 분석 상록야학에 맞는 대안교육은 무엇일까 상록야학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정보화교육 포함)	
7. 23.(월)~31.(화)	참관수업 교실체험	4교시 수업 전체 참관 수업참관 보고서 작성	
8. 2.(목)	검정고시 응원	검정고시장 방문 응원	
8. 4.(토) 늦은 5시	교사 업무 과목 배정 모의수업 준비	교사조직(교무부, 담임, 분과), 교사회 의, 행사, 수업, 당직, 시험, 각종 양식 작성법, 교과목배정, 모의수업준비	
8. 9.(목)~11.(토)	모의수업	모의수업 평가, 수업에 대한 제언	
8. 13.(월)~18.(토)	교실수업	과목 담당교사 안내로 교실수업 진행 해당 과목 교사와의 대화	
8. 18.(토) 늦은 5시 30분	교사회의 참석	신학기 수업 시간표 짜기	
8. 25.(토)	모교지	그곳에 가면 '함께가는 우리'가 있다	
교육팀 연락처	김현희 편성철 김자연 박해원 류영조		

* 7월 14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예비교사 교육 후, 신입생모집 광고작업을 함께 합니다.

2001 예비교사 명단

이 름	소 속	연락처	E-mail	생년월일
권은정				
서정호				
이주형				
김경애				
강현주				
박수진				
변경혜				
옥수진				
김동철				
손정대				
신조일				
박명지				
전준우				
권오옥				
김범석				

제1장 야학사

편집부

하늘이 온통 뿐입니다. 낮게 드리워진 젖빛 구름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는 우리의 의식마저도 젖빛으로 물들이려 합니다. 이렇게 흐린 세상엔 흐린 의식들이 판을 치겠지요. 그러나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구름 너머에도 여전히 밝은 태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맑은 아기의 얼굴같은 금빛 태양이 말입니다.

저는 이맘때쯤이면 항상 존재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존재, 너의 존재, 우리의 존재에 대해 말입니다. 네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네가 있는 상황. 곧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살아있음에 대한,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 아닐까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까뮈는 ‘나는 방황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했지요. 개인에 따라 그 존재의 이유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양식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히 위의 명제를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한다’,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조금은 역설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이기 위해-우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우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우리’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끝도 ‘우리’에서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이곳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로 함께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할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 쌓여서 결국은 바위를 깨뜨리고 맙니다. 나, 너, 우리 모두 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어 보기로 합시다. 필시 좋은 우리가 만들어지고,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공간인 야학을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꾸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좀더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야학의 변천과 역사적 상황

먼저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야학이라는 것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듯 싶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고, 현재는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침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일제하의 야학

한국사회에서 야학의 태동시기는 일제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제의 수탈에 저항하고 봉건적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적 자각의 필요성을 느낀 선각자들이 야학을 설립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야학은 1907년에 세워진 '마산농민야학'이라고 합니다. 이를 시발로 1919년 3·1 운동 이후에는 민중의 역량이 성장하여 민족운동이 더한층 활기를 띠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토지에서, 탈락된 농민이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고,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노동문제가 대두, 노동야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1930년대에는 시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민족의식의 야학은 일부 폐쇄되어 식민성 야학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제하의 야학은 민족의 주체의식을 자각시키는 애국계몽운동의 차원에서, 일제에 대한 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해방 이후 5·16 이전까지의 야학

이 시기의 야학은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명맥이 거의 이어지지 못하나, 부분적으로 이승만 독재권력 하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외계층인 몰락이 농민과 도시빈민 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제공 및 교화를 목적으로 한 천막야학 형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③ 1960년대 야학

해방 이후 자생적으로 경제체제를 갖추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산업구조의 파행성, 국민성의 부패 등의 현실은 빈민층의 교육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16 이후 '재건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대체적인 학력 향상을 목표로 한 야학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겸정고시 야학의 원류가 됩니다. 이 겸정고시 야학은 발생당시의 사회적 특성상 관 주도하에서 주로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는데 교사들의 낭만적 관념성 민중과의 거리감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④ 1970년대 야학

이 시기에는 과도한 경제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 불균형의 확대로 한국사회의 담지 세력인 노동자 계층이 사회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추세가 노동현장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70년대 벽두의 전태일 열사의 사건을 지식인이나 학생들에게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노동야학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⑤ 1980년대 야학

여러 방면에서 정치 경제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야학이 교회야학, 농촌야학, 생활야학, 노동야학, 검시야학 등 여러 성격으로 분류되고 그 수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의 야학은 점차 민중운동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는 70년대 개별야학의 문제점인 고립성, 분산성, 수공업성의 극복을 위해 야학협의회가 결성되어 야학 연합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도 1983년 야학연합회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게되어 많은 수의 노동야학이 와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⑥ 1990년대의 야학

90년대 야학은 야학교육운동의 방향성과 목적의식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고, 야학을 이끌어가던 일꾼 주체들 역시 고립과 방황에 높이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침체기를 맞게된 야학들이 사회변화와 교사들과 학생구성들의 특성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기 야학의 전망을 확고히 세우지 못한 채 21세기를 맞이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은 어찌보면 개별 야학들이 개별야학의 현실과 사회현실에 적절히 순응한 채 편리주의적 교육운동을 해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학의 전망에 대해, 80·90년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야학의 효용성과 함께 그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야학의 존재 자체가 모순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야학 역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민중의 자각과 실천의 장으로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학의 시기별 특징

시기	1. 일제하~ 50년	2. 60년말~70년대초	3. 70년대 중후반	4. 70년대말
목적	문자 해독 교육 애국 계몽 운동으로 발 생,민족 민중해방	경규교육에서 소외된이들 에게 지식습득,학력취득기 회제공	현실격론화생활을 하지 못 하는 민중을 위한 비정규 학교	사회문제해결의 주체로써 노동자민중의 자각과 실천 의지의 각성의 의식화 교 육론주,교육기회제공측면
대상	농민,노동자,부녀자,도시 빈민,빈민자녀, 아동	이농출신의 도시빈민구두 막이,작역부,영세농장노동 자,반실업자	도시빈민,빈민자녀,연소 노동자,농장노동자가 많아 짐	연소노동자,농장노동자,빈 민자제,(대기업 노동자화 됨)
진행 자	지식인,학생,지방유지 청 년	봉사,박애적 대학생, 청년,사회사업가	봉사의지를 가진 대학생, 지식청년,교회청년,학생은 동출신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는 학 내,교회대학생,일반대학생, 지식청년
내용	한글,역사,한문,국어 수리,일어	정규교육기관의 검시교육	동일한 검시교육,생활교육,노동법 규	노동법,사회과학적 역사, 정치,문화교양 겸정교시대비,
장소	학교건물빌려 사용 지방유지건물	천막,판자집,학교, 시회봉사기관	교회내,영세판자촌,천막,사 회단체부설	주로 교회내,교사자취방
비교	야학의태동,일제하의 민 중들의 반봉건, 반제, 민중 해방 운동으로 질격인 발 전	대개 겸정교시대비 비정 규적 학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단일한 형태의 유형	민중문제접근에의 봉사가 념이 사라짐 검시 야학은 제도권으로 편입됨,프레이 리의 '민중교육론도입'	대상이 공장 노동자로 단 일화, 노동야학의 증가와 식화론 기초가 쌓임

시기	5. 80년대	6. 80년대말	7. 90년대 초중반
목적	노동자의 정치적각성과 노동활동가 목표로 의식화 교육	의식화교육과 교육기회의 제공 공동 존재	교육기회제공,인간관계를 통한 공동체 지향
대상	연소, 중소, 대기업 노동자 도시빈 민,	일반 노동자, 교육소외빈민, 연소 노 동자	생산직노동자,주부,3차산업 종 사자,중고탈락자
진행 자	학생운동원출신, 교회, 지식청년	노동운동의 관심 있는 지식 대학생, 일반 직장인	봉사위주의 대학생 및 직장인
내용	노동관련수업, 사회과학및정치, 사회 교육,검시,생활 교육	검시수업 및 노동, 사회과학관련수 업	검시과목위주,문화,컴퓨터 과목 등
장소	자취방, 교회, 성당, 소규모강소	주로 교회공간, 소수의 독립공간	자체 공간의 확보, 교회,지방자 치단체건물
비교	야학의 사회과학적 운동론의논정 및 정립, 야학논정, 야학연합회사건	노동야학의 발전적인 해체와 통합, 생활야학 및 검시야학	야학의 폐교 및 감소, 전반적 으로 보수화 경향

우리는 앞에서 야학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되었으며 또 역사적 상황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학이라는 것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필연적 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야학은 직접, 간접적으로 사회 운동적 성격을 둘 수 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좀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야학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21세기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자리로 남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야학은 일반적으로 운영현실이나 교과 내용 등의 외적 조건이 구분의 기준이 되는 노동 야학, 겸시 야학, 생활 야학 등의 분류와 함께 야학의 목표와 방향성에 따른 질적 구분 형태인 진보, 보수야학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나름대로의 성격적 특성을 강조해 민중야학, 교회야학, 농촌야학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 다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구분형태인 노동야학, 겸시야학, 생활야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야학은 일제하에서부터 그 맥을 이어나와 오늘날까지도 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근로자들의 교양과 주체적 인간형성을 위한 의식 개발을 목표로 삼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급학교로의 진학보다는 현재적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자체내에서 만든 교재를 바탕으로 대화식 수업을 진행하며, 대개 6개월에서 1년 과정으로 신입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겸시야학,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하여 그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겸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과목이나 수업진행 방식 등에서 제도교육인 학교 교육과 가장 근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개 하루에 3~4시간의 수업을 통해 전 과정을 1년 반에서 2년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정고시 야학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서 배우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 교육의 여러 모순을 함께 안고 있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전인교육에 대한 야학내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안되고 있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야학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몇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 야학의 방향성(목적)의 변화

겸시·노동·생활야학 등 각자 나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존재해왔던 야학들의 '2001년 현재의 존재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에 답해보는 것이 현재의 야학들에 대한 전체적인 밀그림을 그려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몇 개의 단위야학들의 목적을 살펴보면 생활야학과 겸시대비야학이 혼재된 상태이다. 노동야학을 표방하는 단위야학은 거의 소멸된 상태이며, 겸시야학 부분은 대형전문학원이 대체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어디에든 존재하

지만 현재의 야학의 상황은 과도기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자리를 잃고 헤매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많은 야학들이 학생부족과 교사수급의 문제로 문을 닫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학생구성의 변화

현재 서울소재 5개 야학을 대상으로 학생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별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합계
중등	남		8	2	1			11
	여	2	2	1	11	3		19
고등	남	7	24	10	2			43
	여	6	12	26	24	2		70
합계		15	46	39	38	5		143

- 70-80年代 그리고 90年代 중반까지의 학생들의 연령층은 10-20代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고 따라서 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태였고, 그래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야학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생의 구성 연령층은 그때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90년대 중반부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서 지금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표에서 보다시피 30-40代 주부들이 상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과거의 공장 근로자들의 비율은 현저히 감소한 추세입니다. 표에서 나타나는 10대 후반의 학생들 대부분은 경제적 여건 때문이라기 보다는 제도권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결손가정 등으로 인해 스스로 학교를 뛰쳐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감싸고 나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야학들에 있어서 이들의 충돌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령층이 확대됨에 따라서 야학의 교육부문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머니들의 사고와 청년들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교육의 초점과 관심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야학들 대부분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야학들은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변화라든지, 생활, 문화수업의 소재 변화등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문인력의 부족과 교사들의 짧은 야학활동 주기 등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 교사 구성의 변화

교사의 흐름은 학생 변화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데, 그것은 앞서 언급한 학생의 변화가 대상층의 변화로 이야기 할 수 있음에 반해 교사의 경우 의식의 변화가 그 주류를 이루

고 있다는 점입니다. 70·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이 학생운동에서 노동자 중심의 조직체로의 변화등을 겪으면서 9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성격 및 방향성의 변화들이 있었고, 이는 90년대 야학교사들의 변화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90년대 이후 야학을 찾아오는 교사의 경우 그 목적이 '봉사'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어 지고 있는 점은 교사들의 의식 변화의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야학사를 정리하며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야학은 넓게 생각해 볼 때 전체적인 사회 구조와 모순의 산물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야학은 사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모순의 일부분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즉 야학은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조금씩 걷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학은 작게는 가정사정이나 개인사정,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場)의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얘기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의 역할도 해 줍니다. 또한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대 사회적 운동의 실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야학은 넓게는 사회의 어둠을 풀여나가고, 작게는 개인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학은 야학과 같은 비정상적인 교육기관이 필요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야학이 필요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 야학은 필요하며, 역설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때, 우리들의 의식이 계발될 때 너, 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사회풍토가 되었을 때, 진정 야학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야학은 이를 위해 주변의 조그만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실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실천의식이 쌓여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은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2장 야학 연대에 대해서

과학교사 이상민

야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인가 특이한 소수의 집단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중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3%정도라 한다. 고등학교 중도에서 교육을 포기한 (또는 포기 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10%에 육박하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야학교육을 받는 이들이 (또는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실제 숫자와는 다르게 아주 특이한 소수의 집단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야학의 수가 20개 정도나 된다는 사실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직도 야학이 그렇게 많아요?” 하고 묻는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는 야학이 특이한 소수의 집단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더욱 현재 야학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야학 학생인 경우에도 이런 인식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은 차라리 놀라운 일이다.

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야학들간에 연대가 느슨하여 주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야학 연대의 역사를 짧은 지면을 통하여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야학은 10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연대를 형성해 왔고 지금의 상황은 다소 연대 활동이 느슨한 시기라는 현실만 인식하는 정도로만 야학연대의 통시적인 역사를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야학의 연대조직과 그 구성, 그리고 야학 연대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야학의 연대조직과 그 구성

지금 연대 조직은 서울지역 야학들의 모임이 있고 그 안에 북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 남서부지역..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화된 모임이 있다. 이 모임의 성격은 단순히 연합이나 협의회 수준은 아니고 비정기적인 연락이 가능한 수준의 ‘단순한 연락망 정도를 마련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외에 서경야협이라는 (서울 경기지역 야학 협의회) 협의회 수준의 조직이 있으며 이 조직은 1기조직과 2기조직으로 발전되었으나 현재 상태는 2기조직의 해체이후 사실상 조직 자체가 와해된 상태다. 또한 ‘전야협 건설 모임’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는 이전에 전국 야학들의 연석 회의가 발전된 모임으로 단순한 연석회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전국 야학의 대표성의 띠는 야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기까지의 조직들에 대한 설명 중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이런 조직들이 산별 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모임 위에 서울지역 야학들의 모임, 그 것에 경기지역 야학들의 모임이 합쳐져서 서경야협, 서경야협의 뜻을 계승한 모임이 전야협 건설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들 조직들의 일관성을 알 수 있다.

이런 공식적인 조직 외에 야학인 들의 잔치인 '야학인 한마당'과 야학의 문제만을 다룬 '야학21'이라는 소책자(booklet) 형태의 잡지가 있다. 야학인 한마당은 일년에 한 번식 야학인 들이 모여서 대동놀이와 공연 등을 하는 야학인 들의 축제이다. 이는 서경야협이 발족된 이후부터는 서경야협이 행사를 주관해오다가 서경야협의 사실상의 해체 이후 행사 주체자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잡지 '야학21'은 대부분 서경야협 1기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격 월간지로 야학 문제를 진보적이고 심층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잡지이다. 그러나 '서경야협'이 해체된 이후 정보 소통의 공간을 '야학 21'이 마련하고 있으며 실제로 야학인 한마당과 '전야협 건설 모임'도 '야학21'을 통해서 재기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연대조직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개별야학 들의 지원과 호응이 부족한 것이다. 이는 첫째, 야학인 들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야학인 들은 학생과 교사들 모두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진다) 둘째, 개별 야학의 산적한 문제 때문에 야학 연대조직을 위해 활동한 여력이 없고 셋째, 연대를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2 야학 연대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

야학연대가 필요한 이유는 개별 야학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좀더 조직적이고 건설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먼저 개별 야학들의 분류 방식을 알아보자. 야학들은 보통 겸시야학, 생활야학, 노동야학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런 분류방식은 노동 야학이란 말이 가진 이미지의 경직성 때문에 '진보야학'을 표현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겸시 야학이라는 말 역시 겸시라는 말의 경직성 때문에 다른 활동과 목표들이 오해받을 수 있다. 생활 야학인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인 (겸시 야학과 노동야학으로 규정 당하기 싫은 반작용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야학의 교육의 목표를 '대체 교육'을 목표로 하는 야학과 '대안 교육'을 목표로 하는 야학으로 나누어서 이후의 논리를 진행할 것이다. 대체 교육을 목표로 하는 야학과 대안 교육을 목표로 하는 야학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 공통점은 제도권 교육에 소외 받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인 것이다. 여기에서 대체 교육이란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 받은 사람들이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다소 덜어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차별대우를 해소시키기 위한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대안 교육이란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된 교육도 야학에서 실현시키려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물론 모든 야학은 이러한 대체적 성격과 대안적 성격 모두를 지니고 있다. 대체 교육을 목표로 하는 야학과 대안 교육을 목표로 하는 야학으로 나눈 것은 편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모든 야학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확실히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 중간정도에서 좌우에 위치한 야학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경황성에 따라서 야학을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가 자기가 속해있는 야학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류

기준이라 생각이 든다. 야학의 발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우리 야학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다거나 겸시 합격률이 높아진다거나, 졸업생 중에 출세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으로 야학들의 발전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야학은 가장 낮은 곳에서 존재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된 뛰어난 몇몇의 학생을 발굴하는 것이 야학의 사명은 아니다. 야학에서조차 소외되면 더 이상 갈곳이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하는 교육의 야학의 참 모습이기 때문이다. 야학의 진정한 발전은 당연히 성실한 노동에 대한 가치 있는 자긍심과 함께 실질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그에 합당한 실력 향상, 통일로 가는 민주사회에 대한 바른 의식이 있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소수의 뛰어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야학 연대의 필요성은 이런 단순한 물음에서도 시작한다. 야학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너무 모두 껴안으려는 경향이 있다. 모두 껴안으려 해도 결국엔 졸업하게 되는 학생은 입학생 중에 아주 일부라는 사실을 볼 때 야학은 과감히 다른 요구를 가진 학생에게 그에 맞는 다른 곳을 소개해 주어야 한다.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야학들은 긴밀한 연대와 다양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속성 교육이 필요한 학생도 있고 기초 교육이 더 필요한 학생도 있고 또는 직업 교육이 필요한 학생도 있다. (대안 교육이 필요한 학생도 있고 대체 교육이 필요한 학생도 있다.) 야학들이 긴밀한 연대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할 때 자기 개별야학이 대체적 성격을 가진 야학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대안적 성격을 가진 야학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오히려 긴밀한 연대는 다양성을 이룩해준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교육을 할 때 다른 요구를 가진 학생들에게 다른 야학이나 단체 또는 학원들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야학에서 중학교를 마친 학생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다른 야학이나 단체로 가도 배신감이나 미안한 감은 물론 상호 교류를 통하여 그리움까지도 없앨 수 있는 정도의 연대를 바라는 것은 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야학 교육의 성공은 그 현실적 바탕이 얼마나 단단한지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제도권 학교가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졸업생들에 대한 배려와 비교해 볼 때 야학이 졸업 이후의 대한 배려는 매우 미비하다. 보다 사회에 역동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직업훈련소에 대한 정보,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 자격증에 대한 정보, 직장에 대한 정보, 복지보조금에 대한 정보, 직업 선택에 따른 정보를 끊임없이 야학에 제공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PC 통신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직장 등에서 학생보다 많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령 이러한 정보 수집과 홍보를 하는 담당 부서를 야학에 만들고 게시판이나 종례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야학들간의 연대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야학들간의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상근 교사 또는 직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야학이 적극적이고 체계가 잡힌 시민 단체(NGO)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근

직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위 야학이 졸업생들이나 전직 교사들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수법을 동원해서라도 기금을 마련하여 상근 직원을 둔다면 상근 직원으로 인하여 더 많은 기금이 마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다) 대부분의 야학이 현실적으로 상근 직원을 두는 것이 힘든 것을 가만 한다면 야학 연대를 통하여 야학들의 회비로써 전체야학을 관리하는 중앙 조직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한일이다. 중앙조직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적 보조가 필요하다. 야학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학생과 교사 모두 전문적인 학생이 아니고 전문적인 교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야학이 부업이 아닌 야학이 주업이 되는 상근 직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야학들의 회비로써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격증 제도가 올해부터 바뀌었다. 기능사 자격증만 있다면 검시의 대부분의 과목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료 직업 훈련소가 요즘 도처에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해당 야학인 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야학의 비 전문성이 만들어낸 슬픈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야학인 들이 방황을 하고 (젊을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 많아진다) 힘들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당면하고 시급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야학연대가 아닐까 한다.

제3장 상록야학이 걸어온 길

편집부

상록이 걸어온 길을 연도별로 간단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1976년

- 3월 7일 : 새마을 상록 중학교 개교
- 이문1동 사무소 2층 회의실(학생 36, 교사 8)
- 6월 17일 : 한국 외국어 대학교와 차매결연

2. 1977년

- 1월 22일 : 상록 중학교 교지 "는 푸름"발간, 상록학교 교칙 제정
- 3월 5일 : 제 2회 입학식(학생 67, 교사 25)
 ▣ 중학 과정을 1년에서 2년 수료 과정으로 확정
- 4월 5일 : 교훈 제정
 ▣ 성실히 일하자, 열심히 배우자, 믿으며 사랑하자.
- 4월 7일 : 교가 제정
 ▣ 작사 : 조양욱(국어 교사), 작곡 : 손민정(음악 교사)
- 5월 5일 : 배지 제작(미술교사 : 남영희)
- 7월 15일 : 장학회 규정 제정
- 9월 15일 : 제1회 "형설배" 체육대회 개최
 ▣ 상록 · 청량리 · 동창 야학 참가
- 12월 29일 : 제1회 학예 발표회 "상록의 밤" 개최

3. 1978년

- 1월 : 상록 중학교 휴교
- 3월 1일 : 교지 "는 푸름" 제2호 발간
- 5일 : 제1회 졸업식 · 제3회 입학식 거행 (졸업생 15, 신입생 75, 교사 27)
- 4월 20일 :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개최
- 9월 1일 : 3월 입학제를 9월 입학제로 확정
- 10월 7일 : 경주로 2박 3일 수학여행
 5일 : 제2회 "형설배" 체육대회 개최
- 11월 15일 : 제4회 입학식 거행(학생 98, 교사 35)
- 12월 23일 : 제2회 "상록의 밤" 개최

4. 1979년

- 3월 4일 : 제2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33)
 ▣ 상급 학교 진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9월 2일 : 제5회 입학식 거행(학생 150, 교사 35)
 ▣ 교실 부족으로 중 2학년 교실을 위생병원 옆 성신학원 2층 강의실을 빌어 사용함

-10월 6일 : 경주, 부산으로 3박 4일 수학여행

-11월 16일 :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12월 22일 : 제3회 "상록의 밤" 개최

5. 1980년

- 3월 2일 : 제3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49)

5일 : 교지 "늘 푸름" 제3회 발간

- 5월 5일 : 경주, 부산으로 3박 4일 수학여행

- 9월 7일 : 제4회 졸업식, 제6회 입학식 거행(졸업생 56, 신입생 99)

▣ 동아 방송에서 취재 보도 격려 · 성금 담지

-10월 9일 :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개최

19일 : 제3회 "형설배" 체육대회 개최

▣ 상록 · 청량리 · 동창 · 선우 · 참삼 야학 참가

-12월 21일 : 제4회 "상록의 밤" 개최

28일 : 상록 학교 교사 "동우회" 모임

▣ 회칙 제정, 창립총회

6. 1981년

- 2월 22일 : 상록 학교를 휘경 1동 진영빌딩 지하 1층을 천만 원에 임대하여 이전 함

- 3월 7일 : 상록 학교 개교 5주년을 기념하여 교기 제작

8일 : 상록 학교 개교 5주년 기념 행사, 학교 이전식

- 5월 9일 : 경부, 부산으로 3박 4일 수학여행

- 7월 5일 : 상록 중학교 정학 위원회 회칙 제정 · 정학 위원회 발족

- 9월 6일 : 제5회 졸업식 · 제7회 입학식 거행(졸업생 37, 신입생 132)

20일 : 제2회 졸업생 모임 "오계절" 일일 찾집

-10월 4일 :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18일 : 제4회 "형설배" 체육대회

25일 : 제5회 "상록의 밤" 개최 시기를 12월 하순에서 3월초로 변경

-11월 15일 : 국립박물관 견학 및 "한국 미술 5천 년전" 관람

-12월 24일 : 상록 학교 제1회 성탄절 노래 자랑 개최

7. 1985년

- 3월 17일 : 제9회 개교기념 학예 발표회 "상록의 밤" 개최

- 5월 3일 : 경주 · 부산 · 울산으로 3박 4일 수학여행

- 9월 1일 : 상록 고등학교 개교 · 제1회 신입생

▣ 이문동 은성빌딩 (신입생 130)

: 상록 중학교 제9회 졸업식 및 제11회 입학식(졸업생 45, 신입생 110)

9일 : 동대문 보건소 의료진 본교 방문 치과 진료

-11월 3일 :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8. 1986년

- 2월 12일 : 상록 고등학교 이전
- ☞ 휘경 2동 66-3, 보증금 400만원-월 40만원
- 3월 2일 : 개교 기념 10주년 기념 학예 발표회 "상록의 밤" 개최
29일 : 상록 중·고등학교 교칙 제정
- 5월 4일 : 백일장 및 사생대회
- 6월 1일 : 서울시 야학 체육대회 참여
- 9월 5일 : 상록 중학교 제10회 졸업식 · 제12회 입학식(졸업생 32, 입학생 96)
: 상록 고등학교 제2회 입학식(신입생 120)
- 11월 2일 : 국립중앙박물관 견학 · 백일장 실시

9. 1988년

- 3월 6일 : 제12회 개교 기념 "상록의 밤" 개최
- ☞ 영동 고등학교와 자매 결연
- ☞ 상록 중·고등학교 총 동문회 결성
- 8월 6일 : 전현직 교사 "는 푸름"회 집회

10. 1989년

- 12월 17일 : 상록 중·고등학교 이전식 거행

11. 1990년

- 8월 20일 : 교지 명칭 변경 제4호 발행
- ☞ 는 푸름 → "푸른 그루"
- 9월 16일 : 제3회 서울지역 균로 청소년 연합 체육대회

12. 1995년

- 1월 15일 : 제2회 시화전 개최
- ☞ '시화집' 제1회 발간
- 3월 5일 : 제19회 "상록의 밤" 개최
- 5월 19일 : 설악산으로 2박3일 수학여행
- 6월 3일 : "상록 동문의 밤" 입방식
- 10월 3일 :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 11월 1일 : 상록 백일장 개최

13. 1999년

- 1월 20일 : 제5회 시화전 및 금빛 비단길 제4집 발간
- 3월 4일 : 제23회 상록의 밤 개최
- 5월 21일 : 백제원 2박3일 수학여행
- 9월 4일 : 교지 푸른 그루 제13회 발간
- 5일 : 상록 중학교 제23회 졸업식 · 25회 입학식
상록 고등학교 제13회 졸업식 · 15회 입학식

제4장 상록학교 학사운영

2001년 상록학교 주요 학사일정 (예정)

* 본 2001년 상록학교 주요 학사일정은 참고용으로 작성한 예정 일정이며, 정확한 학사일정은 매월 교사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월	일 (요일)	내 용
1	12/30(토)~1/1(월)	신년방학
	6(화)~7(일)	신년교사MT 및 1월 교사회의
	21(일)~26(금)	설방학
2	15(목)~17(토)	중간고사
	17(토)	교사회의
	19(월)~3월3일(토)	상록의밤 연습
3	4(일)	상록의밤(개교기념학예발표회)
	17(토)	교사회의
4	5(목)	검정고시 / 초등고시(확인요망)
	21(토)	교사회의
	23(월)~25(수)	기말고사
	28(토)~30(월)	수학여행
5	19(토)	교사회의 / 신입교사 모집
6	16(토)	교사회의
	21(목)~23(토)	중간고사
7	21(토)	교사회의 / 신입생모집 광고작업
8	2(목)	검정고시 (확인요망)
	3(금)~8(수)	여름방학
	18(토)	교사회의
	20(월)~22(수)	기말고사
9	1(토)	신입생 예비소집
	2(일)	졸업식 · 입학식
	15(토)	교사회의
10	1(월)~3일(수)	추석방학
	14(일)	신입생환영 체육대회
	20(토)	교사회의
	25(목)~27(토)	중간고사
11	4(일)	백일장
	17(토)	교사회의
12	15(토)	교사회의
	17(월)~19(수)	기말고사
	29(토)	총년의 밤

1. 상록의 주요 학사운영

1) 학기

우리 학교는 매년 9월 신입생을 맞이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나눠 모집하며 각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려면 4년이 걸리게 됩니다. 학기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1년이 4학기로 나눠지며 각 학기는 4 개월로 나눠집니다. 한 학년이 마쳐지려면 8개월이 걸리게 되죠.

정리해보면 9월에 입학한 신입생은 8개월이 지난 그 다음해 5월에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 수업

수업은 일주일에 6일 (월~토) 실시됩니다. 매일 7시 30분에 시작해서 40분씩 2교시가 진행된 후에 10분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40분씩 2교시의 수업이 진행되고 10시 20분에 정규 수업이 끝납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과목으로는 검정고시에서 시험과목으로 채택한 모든 과목을 비롯해서 교양수업, 모둠수업,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시험

상록에서는 한 학기에 두 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합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시험이 있는 셈이죠. 학기가 보통 학교보다 짧은 특성 때문에 시험이 비교적 자주 돌아온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험은 정규 수업을 대신해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간고사는 2일 동안 시행되며 국·영·수·과·사회 과목 이외에 시험 희망과목 위주로 보며, 기말고사는 전과목에 걸쳐 3일 동안 시행 됩니다. 시험 시간표는 시험 보기 전에 교무실에 공고되며 교사들과 학생이 의논해서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각 과목 담당교사가 자율적으로 낼 수 있으며 시험 문제는 보관철에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시험 결과는 각 반 성적 장부에 과목별로 기록합니다.

4) 방학

우리 학교는 3년의 과정을 2년 안에 마쳐야 하는 특성 때문에 제도권 학교처럼 봄, 여름 그리고 겨울에 긴 방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크게 4번의 방학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연말 행사가 끝난 후나 연초에 2~3일간의 '새해 방학'이 있고 설날을 전후로 해서 약 1주일간의 '설날 방학'이 있습니다.

또 여름 휴기를 맞이해서 검정고시 후에 약 1주일간의 '여름방학'이 있고 추석을 전후로 4~5일간의 '추석 방학'이 있습니다.

2. 상록의 한해살이

-우리 학교에는 상록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고민을 이야기해보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크고 작고를 떠나 값지고 소중하지만 때때로 관성적인 행사 준비, 발전없는 답습으로 인해 행사의 본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합니다. 예비교사 여러분들 모두 행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상록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1) 신입생 모집 광고작업

그 어느 행사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배움을 갈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야학을 소개하고 야학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안내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매년 7월과 8월에 재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증인 신입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조를 짜서 지역별로 나눠 광고작업을 하게 되는데 전단지를 붙이는 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이 때에는 수업을 2교시까지로 단축하고 9시부터 조별로 학교 밖으로 이동합니다.

2) 예비교사 교육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교육입니다. 상록은 9월 학기에 맞추어 해마다 새로운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상록을 그만두는 교사분들의 아쉬움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로 상록을 시작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 들어오는 식구들도 다시 한번 자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사 모집은 주로 5~6월에 이뤄지고 교육은 7~8월 두 달간 진행됩니다.

3) 졸업식 및 입학식

졸업식과 입학식은 매년 9월 첫째주 일요일에 같이 실시합니다. 신입생을 맞는다는 설레임과 졸업생을 떠나보낸다는 아쉬움이 함께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행사가 하루에 치뤄진다는 것 때문에 다소 혼잡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4) 졸업여행 및 수학여행과 소풍

매년 8월 겸정고시가 끝나면 졸업생들과 선생님들이 1박 2일로 함께 졸업여행을 가게됩니다. 2년간의 학교생활을 정리하며 졸업 후 서로 가야할 진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모색해 보는 기회입니다.

또 격년제로 5월쯤에 한 해는 수학여행(약 2박 3일)을, 다음해는 봄 소풍을 갑니다. 그간 일과 공부에 지친 몸과 마음을 짧은 여행을 통해 푸는 시간을 갖게됩니다.

5) 겸정고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고등학교로 입학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를 치릅니다. 검정고시는 해마다 4월과 8월에 실시되며 이 시기가 되면 검정고시를 치르는 반에서는 보충수업이 실시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 야학인 한마당 및 신입생 환영 체육 대회

서울의 4개지역 (북부-상록은 북부에 속해 있습니다-중부, 남동부, 남서부) 의 야학 학생들이 모여 주경야독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서로를 격려하며 모두 어우러지는 자리입니다. 평소 상록안에 갇혀 야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기 쉬운데 이 기회를 통해 '야학인'으로서의 스스로를 느끼며 다시금 야학인의 단결과 전망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매년 10월경에 열리며 이 때를 전후로 해서 우리 학교 내 자체적으로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체육대회를 엽니다. 재학생과 교사, 신입생은 물론이고 졸업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7) 총학회의 및 학급의 한울타리

한울타리는 월요일 3교시에 실시되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시간입니다. 각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고 스스로 결정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생일잔치가 벌어지거나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또한 총학생회가 조직되어 1년에 한 번 임원을 선출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교사회의

교사회의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5시 30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회의는 1개월 간의 학교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학교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곳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9) 각반 모꼬지 및 교사 모꼬지

우리 야학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 반별로 각 반의 분위기와 필요성에 따라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꼬지를 갑니다.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평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정도 쌓고 각반의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교사들도 1월 초에 있는 신년 교사모꼬지 이외에 특별히 정해진 시기가 없이 1박 2일 정도의 짧은 여행을 떠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정을 확인하고, 상록에 대한 토론과 고민의 장을 열기도 합니다.

10) 상록의 밤과 일일주점

상록에서는 격년제로 번갈아가며 매년 3월 첫째주 일요일에, 한해는 상록의 밤을 그리고 다음 해에는 일일주점을 엽니다. 상록의 밤은 학예 발표회 시간으로 여러 손님들

과 가족, 친구들을 초대해서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춤, 노래, 연극, 수필, 시 낭송 등 여러 분야를 연습해서 발표합니다. 일일주점은 역시 많은 손님들과 졸업생과 함께 그 해 처음으로 함께 자리하는 시간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팔고 여기서 얻어지는 후원금과 수익금으로 학교가 운영됩니다. 재학생이나 현직 교사의 경우 하루 종일 일에 치여 무의미한 행사가 되기도 한다는 소리가 없지 않지만 상록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11) 총년의 밤

연말에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차분히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를 갖고자 12월 말에 하루를 선택하여 모두 함께 합니다. 각 반별로 장기 자랑을 준비하며 교사들도 그 동안 감추어져있던 모습을 보여 줍니다. 특히 전체 행사 뒤에 갖는 각 반 뒤플이에서 새해에 대한 다짐과 덕담을 나누며 한 식구임을 확인합니다.

3. 모듬활동 소개

<문학반> :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조금은 진부한 느낌이지만 아직도 녹슬어 가는 당신의 가슴에 진정한 윤활유가 되는 것은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상록인들에게도 한번쯤 삶의 때에서 벗어나 자스민향 상큼한 장소로 안내합니다. 쓰기, 감상, 토론, 콩트 등 어느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은 토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문학반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명성을 유지해오면서 상록의 얼굴이 되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연극반 별무리> :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상록학교의 자랑, 연극반 「별무리」입니다. 1992년 9월 2명의 교사와 8명의 학생들이 ‘삶은 연극처럼, 연극을 삶처럼 살자’는 취지 아래 「별무리」라는 연극반을 만들었습니다. 「별무리」라는 이름은 물론 밤하늘의 별무리처럼 반짝 반짝 빛나자는 뜻도 가지지만 특히 ‘공부와, 연극과, 생활을 모두 별무리 없이(?)해내자’라는 재밌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다도반> : 지리산 야생녹차를 즐겨 마신다는 미남 총각 황기연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다도반에서는 일주일간의 스트레스와 뮤은 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향기로운 차 한잔을 드실 수가 있고 상록에서 운치를 아는 가슴이 따뜻하고 인간적인 학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반> : 저희 컴퓨터반은 상록 현관문과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작동방법, 워드작업, 인터넷등을 배우고 있다.

<문화사랑반(신문반)> : 상록의 공기같은 존재, 상록가족의 영원한 친구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은 여러분의 학창생활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상록의 산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글로 풀어보는 너무나도 신성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반> : 저희 영어회화반은 형식과 문법에 얹매인 문어체의 문장들을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쓸 수 있는 대화체 문장들을 접하여 ‘영어’라는 어두운 마법의 성에서 햇불을 밝히려고 한답니다. 영어회화라는 어떤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여하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들이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여, 게임도 하고, 속담도 배우고, Konglish 고치기 시간도 갖고, 악보를 보면서 Popsong도 같이 불러보고...

제5장 상록야학교 교칙

상록 중·고등학교 교칙

제 1 장 : 총칙

제 1조 (명칭): 본 교는 ‘상록 중·고등학교’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교는 배움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야간 학교로서 바른 가치관의 정립 및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참다운 전인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 교육 기간, 교육 과정, 학년, 학기, 휴일

제 3조 (교육 기간): 본 교의 교육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 4조 (교육 과정): 각 학년의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 중등 과정 2년

2. 고등학교 : 고등 과정 2년

제 5조 (학년): 학년은 매년 9월 1일부터 차후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조 (학기): 학기는 6개 학기로 나눈다.

제 7조 (휴일) :

1. 정기 방학- 신정방학 3일, 설 방학 5일, 여름방학 7일, 추석방학 5일

2. 휴일- 법정 공휴일 (단 시험기간은 휴일을 포함할 수 있다)

3. 단축 수업 및 휴교- 학교 사정과 그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 3 장 : 학급수 및 학생 정원

제 8조 (학급수): 본 교는 중·고 각각 2개 학년 2~3개 학급으로 한다.

제 9조 (학생 정원): 본 교는 학급당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장 :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 10조 (입학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년을 전후로 하여 30일 이내로 한다.

제 11조 (입학 자격):

1. 중·고등 각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중·고등 각 과정을 정규 학교에서 이수한 자와 각 과정을 겸시 합격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학을 할 수 없다.

제 12조 (편입학):

1. 1~2학년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담임 회의를 거쳐 1~2학년에 편입
할 수 있다. 단, 2~3학년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편입을 시키지 않는다.

제 13조 (재입학):

1. 자퇴한 자는 담임 회의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2.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원할 시 교사 회의의 결정에 의해 허가한다.

제 5 장 : 휴학, 자퇴, 재적

제 14조 (휴학): 질병, 직장 관계, 학업 부진 등으로 계속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
하여 담임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고, 담임은 이를 교사 회의에 보고한다.

제 15조 (자퇴): 질병, 직장 관계, 학업 부진 등으로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 (제적): 학교에 큰 물의를 일으킨 자로 제적시 교무 회의와 담임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

제 6 장 : 시험, 성적, 졸업, 시상

제 17조 (시험): 시험은 한 학기당 중간 고사와 기말 고사로 나누어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3학년인 경우는 모의 고사 및 졸업 고사를 실시한다.

제 18조 (성적): 학업 성적은 교무 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담당 교사 회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 19조 (졸업): 본 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 사정 회의를 거쳐 졸업을 허가한다.

제 20조 (시상):

1. 시험에 대한 시상을 한다.
2. 임원으로서 학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한 학생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한다.
3. 졸업시에는 학교장상, 개근상, 우등상, 특별상을 수여한다.
4. 그 밖의 행사에 따른 시상을 할 수 있다.

제 7 장 : 납입금, 장학금

제 21조 (납입금): 학생은 교과서 대금 이외에 수업에 관한 납입금을 내지 않는다.

제 22조 (장학금): 장학금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 학생 활동

제 23조 (자치회): 학생은 학급을 중심으로 자치회를 구성하며 이를 활동의 기본단위로 한다.

제 24조 (임원회): 각 학년 학급의 임원들이 모여 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 25조 (중·고 임원회): 중·고등 학교 학급 임원들은 정기적으로 임원 회의를 개최한다.

제 9 장 : 조직

제 26조 (교직원):

1. 본교는 교장, 교감, 교무부장, 일반 교사로 구성한다.
2. 교사는 봉직의 대가로 어떤 형태든 급여나 보수 등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사는 그 직책을 단지 명예롭고 숭고한 봉사의 상징으로 인식해야 하며 교내외적으로 이 기적 목적과 기타 부당한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27조 (구성):

1. 교사회의- 전교사가 참여하며 중·고 교사 합동으로 개최한다.
2. 교무부- 모든 교사로 구성하며, 산하에 5개의 분과를 둔다.
3. 분과는 담임 분과, 연구 분과, 문화 분과, 생활 분과, 대외 사업 분과로 나누며 전 교사는 한 분과에 참여해야 한다.

제 28조 (교장, 교감):

1. 교장, 교감은 학교를 대표한다.
2. 학교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은 교장과의 협의 후에 이루어진다.

제 29조 (교사회의):

1. 본 회의에는 전 교사가 참여함을 의무로 한다.
2. 사정에 따라 임시 교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본 회의는 교사 재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한다.

제 30조 (교무 회의):

1. 본 회의는 교감, 교무부장, 담임,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2. 본 회의는 매월 1회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시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때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본 회의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학교 제반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한다.

제 31조 (각 분과):

1. 담임 분과- 출결, 상담, 수업 및 성적 관리, 학년 담당 교사 모임, 편입
2. 연구 분과- 시험과 검시, 교과목 모임 및 교재 연구, 교육 과정, 신입 교사 교육, 야학 환경 전반 연구, 참고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3. 문화 분과- 신문, 교지, 학예회, 모둠활동, 백일장 및 견학
4. 생활 분과- 교사 활동 관리(당직, 교사회의, 결강), 행사 기획(졸·입학식, 체육대회, 졸년의 밤, 일일 호프, 수학 여행, 교사 모교지 등)
5. 대외사업분과- 동문, 전직 교사, 후원자 관리, 야학 연대 활동

제 32조 (교감):

1. 학교의 실무 운영 및 대표 역할을 한다.
2. 교사의 대표 역할을 한다.

제 33조 (각 분과장):

1.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만료하지 못했을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을 채운다.
2. 임명은 각 분과의 추천에 의해 교사 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3. 각 분과장은 각 분과의 모임을 월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해당 업무를 토의하여 상급회의 (교무회의, 교사 회의) 안건을 제기하거나 당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34조 (담임):

1. 임기는 1개 학년 (8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당학년 담당 교사 중 남녀 2명을 교무회의의 추천으로 교감이 임명한다.
3. 각 담임은 당 학급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부장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4. 각 담임은 주 3일 이상 출교해야 한다.

제 35조 (교사 자격):

1. 교사는 성실하고, 희생적인 심성을 갖추어야 한다.
2. 학생들을 사랑으로 옮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며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거쳐 교사가 될 수 있다.

제 36조 (교사 임기):

1. 교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현재 지변, 질병, 입대, 전근, 결혼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학년 단위인 8

개월을 주기로 봄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임할 경우 최소한 1개월 전에 교무 주임을 거쳐 교사 회의에 통보하여 후임자를 추천하거나 신규 임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7조 (교사 임용):

1. 교사 회의의 동의를 얻어 교감이 임용한다.
 2. 정규 임용인 경우 교사 회의에 사전 통보하여 논의한 뒤 소정의 신입 교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전임 교사는 후임 교사의 준비 과정을 철저히 주어야 한다.
- 제 38조 (교사 임무): 교사는 상록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교사는 학교의 문영 및 발전을 위해 교사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교육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2. 교사는 담당 과목의 성실한 수업과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수업은 천재 지변, 전쟁, 질병 등 불과 항력의 상황이 발생치 않는 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상황 발생시 사전의 통보하여 결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교사는 학생의 생활 지도 및 모둠활동 지도 등 포괄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5. 교사는 학교 행사 및 기타 부수적 재반사항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6. 교사는 교사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교사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7. 시험은 보편 타당한 출제 및 채점으로 제반 사항에 책임을 져야한다.

제 39조 (교사의 권리):

1. 교사는 신성한 수업 시간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사는 학교의 문영과 발전의 관한 제반 사항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항상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교사는 교사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3인 이상 교사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안건 발의의 권리를 가진다.
4. 교사는 수업 분위기의 조성과 확립을 위하여 학생에 대한 제재가 요구될 시는 정당한 조치를 교칙의 의거하여 취할 수 있다.

제 40조 (교사 징계):

1. 교감은 다음 결격 사항에 대한 교사의 징계를 교사 회의에 의뢰해 결정한다.
2. 무단 결강 2회, 교사 회의 무단 불참 2회, 교사의 품위 손상 등 교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교감이 경고 조치한다. 단, 교사 활동에 대한 자료는 담당자가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공고한다.
3. 경고 3회 째에는 교사를 파면 조치한다. 단, 교사 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10 장 : 부속 단체

제 41조 (동문회): 본교 졸업생의 모임으로, 전·현직 교사의 긴밀한 유대를 갖고 학교를 돋는다.

제 42조 (전직 교사회): 본교를 거쳐간 교사들의 모임으로서 현직 교사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학교를 돋는다.

제 11 장 : 부칙

제 43조 (시행 세칙): 이 교칙의 시행의 따른 세부 사항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교감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4조 (부칙):

1. 이 교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칙의 개정은 교사 재직 인원 과반수 투표과 투표 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개정 발의는 교사 재직 인원 1/3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1차 교칙 개정: 1996년 3월 29일

2차 교칙 개정: 1998년 7월 25일

제6장 야학 교사론

국사교사 박해원

이번 예비교사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야학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이다.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로서가 아니라 야학교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자질과 책임감과 품성이 필요하다. 자질과 품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자.

오늘의 우리 야학은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구조의 산물이다. 오도된 역사관, 주입된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 교육은 늘 신음해 왔다. 야학은 교육 공간이고, 야학 교사는 교육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교육이란 지식과 철학과 실천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을 무릇 해본다.

야학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모순들을 포함한 교육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야학 생활이 오히려 좌절감과 비관적인 방향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다. 또한 반성과 실천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아 야학생들이 힘들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된다. 문제는 함께가는 공동체로서 모든 결과가 자기자신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늘 일상의 안일함과 스스로 나태해짐을, 목적의식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야학 일은 자기만족을 위한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청년의 열정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한 개의 맑은 눈은 힘겨워 하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소외계층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실천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반성하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참교육과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함께가는 우리들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다.(류영조 글 中에서)

야학교사로서의 품성

야학교사는 마음으로서의 성실성, 사랑, 겸허, 사랑 등이 필요한데, 이것은 모든 교사가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자질이다. 그러면 야학교사가 지녀할 자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자.

1) 책임감

수업연한, 담임, 분과업무, 수업, 당직 등 자기가 해야할 일과 한 일에 대하여, 교사로서 책임이 따른다. 예를 들면 수업을 무단결강하면 기본적인 징계와 함께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인식이 바뀐다. 무단결강하는 교사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도록 하자.

2) 성실성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다. 성실하다고 해서 책임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실성과 책임감이 조화가 될 때 훌륭한 야학교사가 될 수 있다. 수업준비 대해서도 부단한 성실성과, 수업내용에 대해서도 변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3) 참신성

늘 스스로 발전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늘 참신한 변화를 키우는 노력들을 계율리 하면 창의력·감성교육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음악, 미술, 연극, 운동 등 부지런한 문화 활동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새술을 새부대에 담으려면 새부대가 될만한 그릇을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 봉사정신

기본적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아울러 사회를 이해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야학에서 강조된다.

5) 사랑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다음에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야학과 야학교사를 먼저 생각하고 아낄 때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

6) 창조성

야학이라는 조직속에서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는 새로운 수업을 개설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무엇이든 다 있을 수가 있다. 이 때에 특히 요구되는 부분은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상상력이다. 이 상상력이 바로 창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중 한가지는 과거의 경험이나 방법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것이다. 현재의 성원들(야학의)이 기계적 반복만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 경험들은 현재 상황의 선택 범위를 넓히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때론 과거의 경험들도 다양해 질 수 있다.

7) 유연성

엄밀하게 똑같은 두 상황이란 있을 수 없다. 상황에 대한 조건은 언제든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변화에 따라 그의 계획을 적응시킬 수 있도록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연성이다. 그러나 이것 즉, 유연성을 기회주의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유연성이란 기본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건(즉,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뜻한다. 마치 생물의 진화와 같이 기회주의는 공동체의 이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8) 끈기

끈기야말로 야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야학생활 중에

는 흥분되고 극적인 순간들도 있지만, 반면 지루한 과정들의 연속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날이면 날마다 야학일에 매달려야 하고, 또한 대학인이라는 이름적 지위로 인해 결국 쉽게 지쳐 버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특별한 어떤 자질이 없다 하더라도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자신의 위치에 익숙해지고 그의 자질들을 충분히 향상 시킬 수 있다. 야학활동은 어떤 개인의 성취욕과의 한순간의 거래가 아니라 민중과 함께 해나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므로 끈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기타 : 인간중심, 학문중심, 지식의 전달자 등

“콩을 기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콩나물을 기르기고, 또 하나는 콩나무 키우기이다. 콩나물은 헛볕이 안 드는 응달에서 물만 주면서 키운다. 이 때 콩은 콩 속의 생명력이 죽어가면서 콩나물로 자란다. 그러나 콩나무를 키우는 것은 이것과는 정반대다. 콩을 땅에 심어 가꿀 때 콩은 땅 속의 자양분을 흡수하며 자라서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콩나무는 약간의 보살핌만 있으면 스스로 창조적인 삶을 꾸려 나가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참교육'中에서)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자.

제7장 교육관

가정교사 김자연

상록야학에서 참교육과 열린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관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다음은 예비교사 분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고 싶은 교육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진보주의

- 교육의 자유화 운동
- 실용주의에 기반, 전통적 교육에 대한 반항
- 능동적 교육

2. 본질주의

- 진보주의에 대한 도전
- 교육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다.
 이해보다 습득, 우연의 발생보다는 지도를, 자유보다 훈련, 흥미보다 노력 강조
- 사회 중심주의 교육

3. 항존주의

- 진보주의의 전적 거부
- 현대의 물질문명은 꺾어다 놓은 꽃과 같다.
 즉, 잠깐 동안 아름다울지 모르나 금방 시드는 꽃처럼 현대의 물질 문명도 조만간 시들어 버릴 것

4. 재건주의

- 절충주의
- 목표중심의 미래 지향성
- 현대 인류문명을 위기로 판단, 교육은 새로운 사회질서 건설에 책임있다.

5. 민중교육론

- 민중교육의 대두 배경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작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교육이 위대한 평등장치로 인식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가계급이 만들어 낸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날 교육문제를 연구하는 비판적 시각의 학자에게 있어서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견해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도교육은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기능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물질의 발전에 의한 혜택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본가계급이 누리고 있다. 사회적 분업에 있어서 고등교육을 요구하는 직업수준 즉 보다 많은 물질적 혜택이 보장된 직업수준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교육연수 년한을 필요로 하며 이는 곧 경제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여건이 가능한 계급에 의해서 독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서 제도교육으로 주도되고 있는 교육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을 촉진시켜 우수한 노동력을 배양하고 노동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으로 발전하였으나, 결국 자본가계급의 최대이윤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 고정됨에 따라 일정계급의 정치·경제에 봉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새로운 계급이 부각되고 되었고 특히 교육환경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 빈민 등의 교육문제가 새로운 교육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 제도교육과 민중교육의 차이

현 한국사회의 교육모순으로 인해 정규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민중들에 대한 교육운동을 흔히 민중교육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민중교육이란 의미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좁은 개념으로 본다면 민중교육은 사회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교육기회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의 교육문제 또는 기층민중의 교육권 회복의 문제를 가리킨다. 또 조금 넓은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제도교육 내에서도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민중관을 어떻게 올바르게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 민중교육의 일반적 특성

- 그 출발점은 학생의 구체적 경험에 의거
- 모든 사람들이 교사이며 모든 사람들이 학생이다
- 높은 수준의 참여를 요구한다
-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이끈다
- 문제해결에 있어서 집단적인 노력에 주안점
- 기존의 지식에 의존보다는 새로운 지식창출에 비중
-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
- 재미있어야 한다.

- 현재 한국 민중교육기관의 특성(야학, 공부방, 문해교육 단체)

- 주체의 구성에 있어 교사의 전문성 부재와 학생의 폐쇄적 성격이 공존
- 수업 내용에 있어서 제한적 자율성(제도권, 비제도권 특성을 모두 가짐)
- 수업방식에 있어 은행저금식, 문제제기식 방법의 공존
- 공동체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비영리 단체는 중심으로 구성

- 장기간의 교육 기간으로 운영

몇가지 교육관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자기자신만의 독특한 교육관을 고집하는 것은 좋은 교육관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하고 공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확고한 교육관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확신 있게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록야학을 이끌어갈 주체로서 참교육과 열린교육을 실현 할 수 있는 방도를 다함께 모색해 봅시다.

제7장 일을 거치 ① 고등학교 교사의 교육 현실 비판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 그 현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雲舟 (대한민국 어느 고등학교)

0. 드디어 화를 표현하기로 마음먹음

아수라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제 오후 내내 아수라의 영상을 머리에 그렸습니다. 아수라는 악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악귀는 착한 이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악한 이에게는 사납게 대한다니.

한 달 내내 계속 짓밟혀주었는데도, 아직도 만족 못하는 교장선생님께 이제 저도 무기를 빼어들려고 합니다

1. 난데없는 학급문고 중단

3월 중순쯤 되었지요. 아침에 보충수업을 끝내고 나와 앉아 있는데, 여덟 시 반쯤이었을까요. 교감선생님이 갑자기 큰소리로 '학급문고 중단하세요'를 외치는 것입니다. 한달쯤 전에 제가 만든 학급문고 목록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김진경 선생님이 쓰신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가 문제라고 그러더군요. 그리고는 반마다 지금까지 준비한 학급문고를 "상자에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책은 빼고서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모욕감에 시달렸지요. 상자에 넣어서 가지고 오라니요… 그래서 겸열을 하겠다니요… 이게 어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 일은 그전에 아무런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도서 담당인 저에게 사전에 아무런 말이 없었구요. 다른 국어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마치 태초에 신이 천지창조 하듯 위에서 한마디 말씀이 떨어지자, 그것이 곧 법이 되고 진리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모두 스물네 학급에서 여섯 학급이 이런 교장의 황당한 명령에 따르더군요. 저는 가만이 보고만 있었지요. 한달 동안 쓰라린 가슴을 내리쓸고만 있었지요. 지난 겨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봄에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제 처지가 도저히 교장/교감과 충돌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제 개인의 휴직까지도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병간호를 할 사람이 집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충돌하고 싶은 의욕도 나지 않는 상황이라, 저는 가만이, 가만이 제 자리에 앉아만 있었답니다.

2.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알고보니, 3학년 상과 담임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교장선생님께 일러바쳤더군요. 책이 불온하다고, 여기에도 웃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일러바친 선생님은 학교에서 <빽빽이>로 악명이 높은 분입니다. <빽빽이>란 시험지에 0.5센티로 줄을 그어서, 모두 빽빽하게 채워오는 숙제입니다. 만약 해오지 않으면 화끈한 타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2학년에서 나왔답니다. 7반 학생 한명과 8반 학생 한명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해서,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를 찾아갔더니..

“빽빽이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강제로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고 싶다.”

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7, 8반 담임선생님들이 그 선생님께 빽빽이를 좀 안 할 수 없냐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한번도 아이들의 저항을 받아보지 못한 이분은 엄청 열이 받았답니다. 그러고는 당장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책을 읽는지 살펴본 겁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교장에게 달려가 책이 불순하다고 일러바쳤답니다. 이렇게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밝히는 책이 많다고 말입니다.

김진경 선생님이 쓴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이상석 선생님이 쓴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그리고 교장선생님 말씀! 「파리에 택시운전사」도 불온도서다!!! 기가 막히더군요. 「난장이가 쪼아올린 공」은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반을 돌아다니시면 학급문고 책장에서 빼내오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와중에서 일어난 코미디 한편

이 와중에서 재미있는 일도 한가지 있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학교에서 정기구독하는 「한겨레21」을 끊으라고 할 때였습니다.

교감 : “저 말이에요. 한겨레21은 끊으세요. 너무 정부비판적이더라고요”

저 : “하하 요즘은 여당지입니다.”

교감 : “.....” (삐친 표정)

교감 : “그래도 좀 그렇더만.”

저 : “에이,,왜 그러십니까? 한겨레가 김대중씨 지지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요.”

교감 : “으음,,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계속,,,그래도,,,더듬더듬) 너무 정부를 비판해.”

주변에 선생님들이 그러더군요. 언제 한번이라도 책을 읽어나보았느냐고 말입니다. 「한겨레21」 역시 전 교감선생님이 한번이라도 그 주간지를 보는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교

무실에서 제 자리가 교감선생님과 1미터밖에 안되거든요. 이 문제는 현재 언론탄압으로 고발할 수 없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슴아픈 한 장면

가슴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3학년 상과, 저를 일러바친 바로 그 반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이 <삐딱선>이래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랬어요.”

“전 선생님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참 그런 일을 아이들 앞에서도 선전했구나...너무한데...잠시 동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동료교사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또 가만이 있자니...내가 정말 삐딱선이 되는 것 같고 해서 난감한 순간이었지요.

어제 토요일에도 그 반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쁜 여학생이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선생님 우리 담임선생님 뺑에 속지 마세요.”

“옛날에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선생님을 뒷산에 끌고가 두들겨패서 벼룩을 잡았대요.”

세상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이야기의 사실성과 상관없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끔찍하잖아요. 하긴 육칠 년 전에는 우리 학교에 조금 험악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답니다. 체육실에서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구타를 당하고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상에서 있는 학교였답니다.

3. 그렇게 하시고도 아직도 만족을 못하셨습니까

4월 17일 금요일 아침에 교감선생님이 지난해 도서관에서 구입한 책목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세 부 복사를 하더니 이리저리 쪽덩쿵쪽덩쿵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오후 세 시쯤 되자 교장실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먼저 어머니 안부를 묻고...역시...그다음 책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전 이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얼굴표정이 딱딱해지고, 그 특유의 목소리가 빨라지려고 하면, 그때마다

“교장선생님, 편하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지금 성의없이 듣고 있지도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 편하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판에는 참...이 날 이야기를 끝내고, 나름대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잘 이야기했구나...이제 이 일은 정리가 되겠군...하고 생각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저는 웃으며 헤어졌습니다....화기애애했죠.

그러나 웬걸!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 아침조회에서 교장은 강편치를 날리더군요. 제가 작문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쓴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글을 구해와 가지고, 그것을 교무회의 시간에 심각한 얼굴로 읽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글은 자유주제 글쓰기를 해오라는 작문숙제로 1학년 4반 학생이 쓴 글인데, 생물선생님이 빼앗아가서 교장선생님께 무슨 큰 일이 일어난 듯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글에 담긴 내용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주입식 단순암기 교육, 폭력적 체벌, 강제 보충수업,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패스컴에서 흔히 보고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은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자라난 순진한 아이들이라서 그 아이들 혼자서 이렇게 논리적인 비판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은근히 저를 지목하더군요.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 논리적인 비판을 할 수 없다니! 정말 최첨단 학습이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생각한 금요일 저녁에, 저녁밥을 먹으면서 다른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분들은 절대로 교장은 화기애애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앞에서 무조건 “네,,네,,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 생각을 소신있게 이야기했으니, 교장 속 뒤집혔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때 저는 ‘설마 설마’ 했지요.

토요일 퇴근시간이 될 즈음에는, 교감선생님이 절 부르시더니, 도서실 서고 문을 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제가 책에 대해 더 잘 알 테니, 알아서 책을 빼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지요...아,,여기까지!!!

저는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으냐’고 따졌습니다. 물론 교감선생님의 특기가 얼굴 붉히고 소리지르기임을 잘 알고 있기에, 내내 얼굴에는 웃음을 감돌게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뽑은 목록을 제 손으로 골라내는 것은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역시 웃는 얼굴로 계속 다가가니까, 교감선생님은 말을 더 못하시더군요. 소리를 지를 빈틈을 안 주었거든요. 결국 교감선생님은 말이 뒤엉켜서 오락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송 선생 말이 다 맞지 그러나 교장선생님 뜻이 그러잖아”

“못 읽을 책이 어디 있겠어. 다 출판되어서 큰 서점에 나온 것들인데. 그러나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봐. 책 때문이 아니야. 송 선생님이 자꾸 아이들에게 이상한 것 가르치고 학교일에 문제제기하니까 그렇지. 사실 그것 때문이지, 책이야 무슨 상관 있겠어”

“그 책들이 문학시험에 나온다고....그래도 상관없어. 학교는 교장의 명에 따라 움직인다고 국가교육과정이라도 교장의 명이면 바꿀 수 있어” (이런 위험한 말까지 했지요...국가 교육과정을 손댈 수 있다니)

“난 몰라..그리면 교장에게 가 봐요. (귀찮다는 듯이) 교장(이제 선생님이라는 존칭도 안 붙인다)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곧바로 교장실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안 계신다. 교장실에 다녀오는 저를 보고서 교감선생님이 하신 말씀,, ---하 사람이, 교장실에 가라고 한다고 그렇게 교장실에 가는 게 아니야---)

4 제가 은근히 제 칼날을 내보이기도 했지요

4월 18일 토요일 점심 때였습니다. 당장 서고 문을 열고 책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문만 따라고 하는 겁니다. 교감선생님 자신이 직접 가지고 오겠다구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열쇠를 학생이 가져갔다고 잡아떼었지요.

그랬더니 지난해 산 책목록을 펼치더니, 몇 권 책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책들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월요일에 가져다드리겠다고 하고서 도장찍힌 목록을 가지고 갔지요. 그러자 다급한 얼굴로 제게 와서, 도장 찍힌 목록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십니까’ 하고 잠시 흄을 들이고서,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가슴을 쿵 치르는 말을 정중하게 했답니다.

당황한 몸짓으로 교감선생님은 목록을 받아서 쟁겨넣었습니다. 월요일에 서고에서 책을 가져오려면 월요일에 목록을 다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록이 증거가 될 것을 두려워했는가 봅니다. 학교에서 불온도서라고 한 목록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제가 교육부 장관 앞으로 질의서를 보내려고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불온도서 맞냐고 말입니다!!!”

“혹시 교권탄압 아니냐고 말입니다!!!”

“여기애 대해 엄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말입니다!!!”

정말 한달 내내 짓밟혀주었는데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하는데, 정말 저도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학급문고에서 문제가 시작했으면서, 흥부전 수업자료에서 ‘빈부모순’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트집잡고, 서고가 더럽다고 문제삼고, 도서대장 작성이 늦다고 압박을 하고, 야외수업한다고 뭐라고 하고,

참고로 교감선생님이 도장을 찍은 책들을 적어보겠습니다

김열규,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 사계절

이재관, 「왈왈이들의 합창」, 보리

최정현·변재란, 「반쪽이 부부의 작은 세상」, 한겨레신문사

최정현·변재란, 「반쪽이의 육아일기」, 여성신문사

김진경,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푸른나무

「세상의 절반 여성 이야기」, 우리교육

박노해, 「사람만이 희망이다」, 해냄
『레드컴플렉스』, 삼인
『역사신문』, 사계절
윤구병, 「꼭 같은 것보다는 다 다른 것이 더 좋아」, 푸른나무
조세희, 「난장이가 쪼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홍세화,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창작과비평사
『아픔을 먹고 자라는 나무』, 푸른나무

자료를 만들어서 출판사에도 보내고, 당신네 출판사 책이 학교에서 볼온도서란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도로 말입니다. 이쪽저쪽 문학단체와 교육단체에도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사 책도 들어있으니까, 거기에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5. 어떻게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십니까

결국 월요일에 도서실 서고에서 책을 빼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과 함께 서고에 와서 책을 빼는데, 대출장에 서명하고 책을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교감선생님이 서명을 못 하는 겁니다. 교감선생님은 가만히 선 채로 어쩔 줄 몰라하다가 그냥 책만 들고 나갔지요. 비민주적 관료들은 자신의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화요일에는 교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시 사십 분쯤 제가 교장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웃으며 헤어졌는데,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를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예전에 직원회의에서 「상록수」와 「부활」을 감명깊게 읽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두 책을 들어서 제 주장을 폴나갔습니다.

“『상록수』를 보면, 가난한 민중을 위해 교육운동을 펼치는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복하게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제국주의에게 학교도 빼앗기고 해서 쫓겨나고 말거든요. 학교를 빼앗긴 아이들이 학교 담장에 매달려서 공부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보면, 귀족이 평민의 팔을 성으로 유린하고 이 여자는 나중에 참녀가 되어서 살아가지요. 소설 끝 부분에 가서 보면 결국 그 여자는 귀족인 남자주인공의 청혼을 거부하고 감옥에 있는 사회주의 운동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제가 학생들에게 권장한 책들보다 ‘덜’ 부정적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교장선생님은 아리저리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그건 지난일이니까 괜찮지 뭐.’ 지난일은 괜찮고, 똑같은 경우의 현실을 가르치면 안된다니, 저는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현실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씀에, 저는 논술시험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대입논술에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이 제도를 찬성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을 종단시켰습니다. 현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가르쳐서는, 학생들이 시험문제조차도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밖에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문제와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쟁논리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오늘의 현실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비판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 주장의 핵심은, 비판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제 논리를 극단화시키십니까?”

말에서 밀리자, 교장선생님은 감정적인 말로 논리적인 대답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거 읽히기 싫다는대두요.’ 아쉽게도 이 날 대화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책 읽히기 싫다고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교장선생님과는 더 이상 어떠한 논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야기하기를 포기하고, 잠시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준비해온 질의서를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순간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하지만 떨리는 마음을 꾹 누르고, 질의서를 교장선생님께 건네드리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쓴 건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6. 결국 교육부 장관 질의서를 내보였지요

교무실에 돌아왔더니, 6교시가 끝나고 7교시 보충수업이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쿵덕 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장실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이야!

교장선생님께 드린 질의서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책들이 불온도서인지에 대해 엄정하게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학교에서 문제가 된 책 목록과 간단한 상황정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장실을 나오자마자 3분만에 급하게 다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기에, 저는 이때 다시 교장실에 들어가면서 입안이 바짝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옆자리에 앉은 선생님 얼굴을 한번 보고, 딱딱한 몸짓으로 교무실을 걸어나갔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방긋 웃고 계셨습니다.

교장 : 내가 언제 ‘불온도서’라고 그랬어. 그냥 나중에 읽히면 좋을 책이라고 그랬지.

저 : 교장선생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교감선생님은 여러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장 : 아- 왜 그래- 교감은 아무것도 아니지. 신경쓰지마- 학교는 교장이 다 책임 게 되어있대두.

교장 : 그래 이걸 교육부장관님께 보내겠다구?

저 :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냥 만들어봤지요.

교장 : 어 송선생 왜 그래. 마음 풀어. 마음 풀어.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나 송선생 안 미워해. 젊은 사람이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다
뭐 그리 크게 생각하나?

그리고는 자리에 일어나서(!) 제 가슴을 손으로 두드리시면서 (!!) 마음을 풀라고 달래주었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지요??? 그 어리둥절함은 7교시 보충수업을 알리는 수업종이 치고서도 20분씩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수업시간이 20분씩이나 넘기고서야 교장실을 나오는데, 교장선생님은 저를 문까지 바래다주는 것이었습니다. 인자하게 웃으면서 기운내라며 호탕한 사나이같이 제 어깨를 쳐너 차례 두드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구분이 안가는 연극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없는 게 아쉬웠지요.

7. 다른 국어선생님들이 고마웠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까지도 지루해 할 정도로 길게 끌린 일이었지요. 올해 도서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전부를 새로 만든 권장도서목록을 구입하는데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새로 만든 권장도서 목록이란, 아무런 사전토론 없이, 교장선생님의 한마디 명령에 그전에 있던 목록을 없애버리고, 다시 만든 목록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각 교과주임들이 모여서 만들었지만, 내용을 보면 겸열을 통해 구미에 맞지 않는 책은 빼버린 목록이지요. 도서 담당 교사는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하기가 무척 부담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과거 목록이 불온도서가 아니라면, 과거 목록과 함께 책을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지요. 그것도 안된다면,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있으니까, 새로 만든 목록을 중심으로 책을 구입하면서, 선생님들께 몇 권씩이라도 책 신청을 받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교감선생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했지요.

이때쯤 해서 이 문제가 한달이 훨씬 지나도록 계속되는 모습을 불안하게 생각한 다른 국어선생님들이 문제해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회의 시간에 국어주임선생님이 일어나셔서, 문제가 되는 책이란 없다고 한 발언을 시작으로, 모든 국어선생님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이번 일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난장이가 쪼아올린 작은 공」은 문학교과서 하권에도 나온다. 「파리에 택시운전사」는 지난해 중학교 모의고사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과거와 달리 지금 국어교과서에는 월북 작가들 작품도 다 나온다. 박정희 정권 때 사형선고를 받은 김지하 시인의 시도 문제집에 나온다. 전두환 때 사형선고를 받은 고은 시인의 시도 교과서에 나오는 세상이다. 얼마전 경기도 주최 논술경시에서는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지금 우리 현실을 비판하는 문제가 나왔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시각으로 수업을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는 A4 여섯 장으로 학교에서 문제가 된 책들에 대해 항변하는 글을 써서 돌렸지요. 국어과에서 이렇게 일치된 행동을 보이자, 교장·교감선생님은 크게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직원회의에서 교장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그대로 회의를 끝내버리더군요. 뭉치니까 힘이 세지더라고요.

그러나 국어선생님들은 그 다음날부터 한 사람씩 교장실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각개격파 분리전술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이 시작된 거지요.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의 이 시도는 성공을 못하고 맙니다.

‘나쁜 책이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책은 읽기에 따라서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책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학교와 서울 학교의 수준차이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요새 나오는 책들을 읽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책을 읽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그런 이야기들도 다 나온대두요. 요즘 세상을 아셔야지요.’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쏟아지는 항의에 결국 일이 뜻대로 안되자, 교장선생님은 다음번에는 권장도서 목록에 문제가 된 책들을 다시 넣자고 한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서, 국어선생님들을 한번 즐겁게 웃음짓게 만들었답니다.

“거 같은 국어과라고 너무 서로 위해주지만 말고, 때로는 따끔하게 서로 비판도 하고 그리라구요.”

8. 교무실에서 일어난 몸싸움

5월 13일 수요일 9시 45분경,

교감선생님께 서류를 들고 가자, 교감선생님은 큰 소리를 치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찢은 서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몸부림치며 제게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은 서류를 다시 주워서, 제 양복 윗도리 주머니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때 세 번에 걸쳐 6미터나 떠밀렸습니다. 이때 얼굴을 한 대 맞기도 했습니다. “교감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듣고간 서류는 그전 주에 제가 쓴 ‘우리학교에서 문제가 된 책들에 대한 항변’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도서예산을 새로 만든 도서목록으로만 사라는 지시에 제가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책이 없다고 하면서 왜 그 책들을 못 사느냐고 따지다가, 지난번에 제가 쓴 글을 읽어보셨느냐고 하니까, 교감선생님은 읽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하고 글을 가져다드리자, 그순간 갑자기 교감선생님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무실에서 열 사람이 넘는

교사들이 그 난리를 지켜보았는데, 교감선생님이 입막음을 하기 시작하자, 다 때리는 장면은 못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감선생님은 글자 그대로 기고만장(氣高萬丈)이었습니다.

‘거 짚은 사람이 화끈해야지. 앞길이 구만리 창천같은 사람이 말이야. 맞았어도 안 맞았다고 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지.’

‘내가 송선생을 때렸다구요. 하늘에 맹세하구요. 제가 때렸다면 이 자리에서 할복을 하고 죽겠습니다.’

교감선생님의 호언장담과는 상관없이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생님들은 무척 거칠어진 분위기를 내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곳곳에서 거친 소리들이 오고갔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떠돌아다녔구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교감선생님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방송실로 데려갔습니다. 두손을 꼭 잡고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 가득 웃음을 미스코리아의 화장처럼 짙게 피우고 서,

‘송선생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 일로 해서 우리 더욱 친해지자구요. 교감이 신경써주면 편한 거 많아요.’

‘그러니 제발 그 때렸다는 말만 하지 말아줘요. 교무회의 때 내가 먼저 사과할께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마디는 했군요. “예, 저도 잘 지내고 싶습니다.”

9. 폭력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움직임

교장선생님 -맞을 짓을 했느니 반성하라니요

교장선생님 말씀은 듣고 나서도 한참동안 귀에 울림이 남았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잊기 힘들겠지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그러니까 맞을 짓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라는 말을 열 번도 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린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장실에 더 앉아 있을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맞을 짓을 했기에 맞았겠지요. 저도 반성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맞은 사람을 보고는 열번도 넘게 계속 반성하라는 말을 하면서, 때린 사람을 보고는 한번도 반성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더 말씀을 듣기가 힘드네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간 있던 일을 단편소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지 45장 분량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어교육」이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현장교사 2500명이 정기구독을 하고 서점에서도 상당수가 팔려나가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글을 실어주기로 이미 합의를 보았습니다.”

-교장 : ‘어- 당신은 이런 거 하면서 언제 국어교육을 하나?’

“여러 편 써둔 단편소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대 맞기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장선생님께서 이 일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만이라도 보여주셨더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몸을 돌려서 저벅저벅 교장실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한껏 부드러워진 목소리가 제 몸을 따라붙었지만 말입니다. ‘어어 송선생, 여기 앉아봐, 어어~’

연구부장 선생님 -제게 ‘비굴’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퇴근하려고 신발장에 가려다가 연구부장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어 아까 나 좀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저히 찾아가서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잠깐 저랑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저는 저녁 햇살을 맞으면서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서 연구부장님과 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교감선생님이 다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서로 좋게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감선생님도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먼저 송선생님이 찾아가서 사과를 하면 교감선생님도 흔쾌히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저랑 같이 교감선생님께 찾아갑시다. 절대 먼저 사과하는 일이 비굴한 행동은 아닙니다.’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말투에 마음이 약해져버리더군요. 그래서 연구부장 선생님과 함께 교감선생님께 찾아갔지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연구부장님 어떻게 점심 때 맞고 그날 저녁 때 맞은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러 갑니까?” 다행히(?) 교무실에 교감선생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퇴근을 했지요.

그런데 다음날 저는,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제 앞에서는 교감선생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던 연구부장님이, 교감선생님 앞에서는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제가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안되네요’ 라며, 제가 잘못했다고 엄청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것입니다.

만약 그때 교무실에 교감선생님이 있어서 저와 교감선생님이 화해에 성공했더라면, 연구부장님이 모든 공을 독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이 조금 무서워지더군요. 이런 일에 대해서 제 직속 상관인 연구부장님이 전혀 인간적인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서글프게 했지요. 물론 이런 결과의 많은 부분이 제 인덕에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기성세대의 자화상이라면 너무 슬픈데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응원해주셨지요. 그렇지만 오히려 저를 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

다. ‘젊은 사람들이 왜 그래, 왜 그리 끈질겨. 교감선생님이 지시를 했으면 바로 들어야지.’ 상급자에 대해서 철저히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상급자와 충돌했다는 그 이유 단 한가지로 제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물론 제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제 뒤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셨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마운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지요

여러 선생님들에게 너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곳에 글자로 한분한분 이름을 밝히는 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설부르게 표시하는 것 같아서 걱정될 만큼, 여러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려울 때 좋은 벗이 드러나는 범입니다.

“어찌나요, 저는 교감선생님 손이 송선생님 뺨에 닿는 것을 보고 말았는데요.”

곧바로 교감선생님은 기가 꽉 죽어버렸답니다. 교감선생님의 입막음 공작이 실패하는 순간이었지요. ‘이건 내 일생이 달린 문제야. 처지가 난처하면 제발 잘 그 장면은 잘 못 보았다고만 말해주어. 그리고 내가 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절대 비밀이야, 알겠지?’ 그전 날 힘에 넘치던 교감선생님이 다음날 아침에 제 손을 잡고 사정하던 까닭은 그전 날 밤에 있은 전화통화 덕택이었습니다.

올바른 증언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에서 용기있는 분이 계셨기에, 이 일이 최소한이나마, 교무회의에서 공개사과를 받을 수 있었지요. 만약 주변 분들이 용기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난처한 처지를 넘어서 정말 폭행을 당하고도 욕만 들어먹은 ‘바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0. 결말

세상이 왜 이럴까

“슈퍼맨 실시!”

슈퍼맨은 제가 학생들에게 주는 별입니다. 슈퍼맨처럼 한손은 번쩍 올리고 다른 한손은 턱에다 갖다대고 별을 서는 겁니다. 별을 주면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져서, 기왕 즐 수밖에 없는 별이라면 좀 재미있게 해보자, 해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운동장을 한두 바퀴 돌고 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어제는 어디서 못들을 무시무시한 말을 들었습니다. 제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이어서 잠시 숨이 턱 막히기도 했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기에다 머리피만 매면 완전히 데모하는 것이겠구만, 애들한테 아예 데모를 가르치지 그래.’ 저는 이 말을 듣고서 기겁을 했습니다.

문제집에 나오는 김지하가 쓴 「새」를 그냥 가르치면 아무 문제가 안되지만, 그것을 노래로 가르치면 「운동권 노래」를 가르친 것이 되어버리는 게 제가 있는 학교의 현실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제가 「새」를 노래로 가르쳐주었다고 즐기차게 슬자리에서 제가 운동권 노래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열변을 토하는 모양입니다. 세상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된 90년대 후반인데, 학교는 아직도 여전히 유신시대처럼 느껴집니다.

단절이 주는 난간함을 통신이 극복

한 달 넘게 이 일이 계속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가만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겠지 하고 옷이 젖는 것을 참고 견디려 했는데, 가만이 있다가 보니 장대비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내리고, 문득 문제가 심각함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이 다급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4월 19일 일요일에 그때까지 일을 정리해서 컴퓨터통신 게시판에 올려 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도움말을 해주세요, 하고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린 거지요. 글을 올리자, 많은 분들이 격려하는 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도 계셨구요. 일이 계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려, 이제 그만 대충 일을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고 통신을 접속하면 언제나 서너 통씩 격려하는 글이 전자우편과 게시판에 들어와 있어서, 새롭게 기운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두려움을 죽이고 상대방의 두려움을 키워야

이런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생겨납니다. 언제나 실체를 모르면 그 대상이 무서운 법입니다. 처음에 저도 교감선생님이 제 시험문제들을 막 복사해가지고 가는데, 이거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을 덜컥 먹었지요.

그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일로 해서 제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된 다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제가 밀려날 구석이 없더라고요. 사립하고 평교사인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 두려움을 죽이는 대신, 상대방의 두려움을 키우기 시작했지요. 교육부 장관 질의서나, 문제가 된 책에 대한 항변을 문서로 정리한 일이나, 이 일을 단편소설로 쓴 일이나, 모두 상대방에게는 제 역량을 가늠할 수 없기에 불안한 문제였을 겁니다.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 그 현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 더 큰소리로 요란스럽게 그 일을 떠벌리고 다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학교는 유난히 「정숙」을 강조합니다. 교실에서도 교무실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숙을 최정점에서 강조하는 교장·교감선생님은 지나치게 많은 말씀을 합니다. 교무회의에서도 평교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역적」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도, 자신들은 엄청난 양의 발언을 위압적이기까지 한 태도로 말을 합니다.

제 일에 대한 보복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 선생님들은 모두 여섯 시에 퇴근해야만 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은 채, 누구와 상의하는 말 한마디 없이, 월요일 아침 직원회의 때 교장이 불쑥 던진 말 때문이지요. '요즘 선생님들이 해이해 보입니다. 이번주는 모두 여섯 시에 퇴근하세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제가 있는 학교에서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한 곳도 있겠고 덜한 곳도 있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엄연한 우리 교육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학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흥길동처럼 도술을 부릴 줄 안다면, 우리도 이 우스꽝스런 현실을 한바탕 희롱하고서 한 세상 떠어메고 저편에 올 도국이라고 하나 만들어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랑하고, 함께 꿈꾸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짜증냅니다. 가끔 가끔 그리움에 시달립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남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어서 이곳을 사랑하기 시작해야겠습니다. 더 마음이 멀어지기 전에, 이곳을 정붙여 살 만한 곳으로 일구어야하겠습니다.

1998.6.7. 해날 밤 글을 끝내다.

❸ 뒤에 덧붙여서 썹니다 : 이 글에 나오는 사람들을 실명으로 쓰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교감선생님이 전체 교무회의 때 자리에 일어나서 공개사과를 했기에, 구체적인 지역이름과 학교이름과 사람이름은 나타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쓴 사람¹⁾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본명을 쓰지 않고, 필명을 썼습니다.

▣ 별임 : 문제도서로 판명된 책들에 대한 항변서 1부.

1) 글쓴이 연락처 : 015-930-0588. 문의가 있으면 이 빠빠로 연락하십시오.

▣ 우리 학교에서 '비교육적' 책으로 분류된 책에 대한 항변 ▣

- 이 책들은 교감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서
- 도서실 서고와 학급문고에서 빼낸 책들입니다

1. 김열규,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 사계절

-저자는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한 분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욕설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어떤 사회환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 언어사회학적 시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누가 읽어도 재미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학급문고 목록에 넣은 까닭은, 학생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 떻게 해서 이 책이 비교육적이라 판명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이재관, <왈왈이들의 합창>, 보리

-97년 전태일 문학상 글쓰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책입니다. 여러 언론에 소개되었지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글을 써버릇 해야 한다는 평범한 주장에 바탕한 책입니다. 이 책이 문제가 된 것은, 아마 저자가 노동운동으로 구속된 경력이 있고 책 내용이 감옥생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나 직접 이 책을 읽어보면, 감옥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쓴 생활글이란 말이지요. 이 책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면,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보면, 그냥 생생한 생활 글쓰기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걸 모양만 보고 선입견을 갖는 일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책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문학상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 비교육적이라면, 우리 문단에서 굵직한 자리에 있는 그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번째는, 지금은 노동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만나 합의를 하는 시대²⁾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자 이야기를 다루었다고 해서 비교육적이라는 말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가치 기준입니다.

3. 김진경,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푸른나무

-우리교육에 대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주로 임시교육에 찌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문제가 된 이유는 아마도 저자가 전교조 해직교사여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조금만 보아도, 우리 교육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모습은 얼마든지 볼 수가

2) 제2기 노사정 위원회는 법적 기구로 활동한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5월 2일자 모든 주요 일간지 보도 인용.

있습니다.

지난해 대입논술문제에서는 임시교육을 비판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본 경기도 논술경시에서도 청소년 문제를 통제로 해결할지 자율로 해결할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교육에 대한 비판은 더 이상 교육 외적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 전체가 교육학습 내용의 범위에 들어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4. 최정현·변재란, <반쪽이 부부의 작은 세상>, 한겨레신문사

-제1회 평등부부상을 받은 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바깥에서 일하고 남성이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며 사는 모습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서 하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주요한 여성단체에서 추천받은 책입니다. 그랬기에 제1회 평등부부상을 받았겠지요. 저자는 지금 여성신문사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5. 최정현·변재란, <반쪽이의 육아일기>, 여성신문사

-이 책 역시 평등하게 살아가려는 부부의 삶을 다룬 만화입니다. 책이 주는 느낌은 잔잔한 느낌입니다. 올바른 결혼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책입니다. 짧은 단편만화 여러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 <세상의 절반 여성 이야기>, 우리교육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남녀공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남녀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학교는 교육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이 책을 학급문고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여성문제에 관련된 책이 모두 비교육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이 책들을 살펴보아도 저로서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7. 박노해, <사람만이 희망이다>, 해냄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주요 일간지 책 소개란에 모두 크게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독특한 명상적 분위기를 전문가들에게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지도급 인사인 김수환 추기경이 추천사를 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책을 읽어본 몇몇 선생님들도 참 책이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비교육적이라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이 비교육적이라면, 이 책에 추천사를 쓴 김수환 추기경 역시 비교육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8. <레드컴플렉스>, 삼인

-레드컴플렉스는 유명한 주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올바르지 못한 이념적 편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북풍 공작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공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기부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논문도 한편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레드컴플렉스의 가장 큰 희생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더 이상 과거의 낡은 이념적 편견에 물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학급문고 목록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학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우리학교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레드컴플렉스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책은 학계의 정치사회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는 대학교수들이 쓴 글을 모은 것입니다.

9. <역사신문>, 사계절

-이 책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원시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신문형식으로 꾸민 책입니다. 모두 여섯권으로 이루어졌구요. 서울시에서는 쉽고 재미있게 우리 역사를 소개했다는 점을 높이 사 청소년권장도서로 추천한 책입니다.

저 역시 학생들이 딱딱해하는 역사를 신문형식으로 부드럽게 설명한 것이 좋아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 책을 비교육적이라고 보고, 도서실 서고에서 까지 빼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는 서울시가 비교육적인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더구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서울 시내 주요서점에서는 따로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책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이 대중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10. 윤구병, <꼭 같은 것보다는 다 다른 것이 더 좋아>, 푸른나무

-생활 속에서 철학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모은 책입니다. 윤구병 선생님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서, 충북대 철학과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시골에서 자연유기농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뛰어난 글을 여러편 발표하신 분입니다.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의 회장이기도 하구요.

더구나 ‘한국철학사상연구회’는 우리나라 논술고사를 지도하는 대표 단체이기도 합니다. 주요 일간지에서 연재하는 논술 특집에 필자로 나오는 학자들 역시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사회 지도급 인사의 책이 비교육적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가 만약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다면 우리 학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살 것이고, 우리 사회 각계에 제자를 내보내신 윤구병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11. 조세희, <난장이가 쪼아올린 작은 공>, 창작과비평사

-70년대 뛰어난 소설작품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 그중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보면 참 과격합니다. 회사 사장이 가난한 노동자의 누이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계속되는 노동탄압에 절망한 노동자는 사장을 칼로찔러 죽입니다. 소설의 처음 시작은 이 주인공의 집이 깅패들에게 철거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격한 작품이 문학교과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월북작가들의 작품도 해금이 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고, 현실비판의 작품도 많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교육부에서 이런 비판적인 인식도 학생들에게 필요하다³⁾고 보고, 그렇게 교과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을 비교교육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것은 국가교육과정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12. 흥세화,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창작과비평사

-7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프랑스로 망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학생이었다가 출지에 택시운전사가 되어 살아간 사람의 세상살이 이야기입니다. 부드럽게 읽히는 글로 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한 백만부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또 글쓴이는 책 덕분으로 해서 텔레비전에도 몇 번 출현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대학로에서는 몇 달째 계속 이 책을 연극으로 만든 작품이 성황리에 공연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이 우리 학교에서 비교교육적인 책이라 낙인찍힌 까닭은, 아마도 글쓴이가 7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실이야 어떻게 굴리가든, 무조건 현실에 순응한 사람의 책만이 교육적이라는 말씀인가요? 이 판단은 절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제 시대에 저항한 모든 시인의 작품은 '부정적인' 것이 되어서 교육내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현실을 아름답게 그린 글만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윤동주의 시도 배우고, 한용운 스님의 시도 배우고, 신채호 선생의 글도 배웁니다. 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몇 번이나 들락거린 고은 선생의 시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박정희가 죽이려고 했던 김지한 시인의 시도 문제집에 나오고, 대입시험의 중요한 예상지문입니다.

잘못된 현실에 저항한 경력이 어떻게 부정적인 것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

3) 물론 비판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비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적 인식이 현대 교육의 중요한 한 과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비판'은 교육에서 터부(taboo)가 아닙니다. 논술교육에서 늘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비판적 인식 능력 함양'입니다.

정적이라는 말은, 혹시, 모든 비판능력을 거세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은 우민화교육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땠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분은 70-80년대에 연달아 사형선고를 받은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대통령의 전기를 읽혀도 그것이 부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인지요.

13. 고재종 외, <아픔을 먹고 자라는 나무>, 푸른나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일대기를 쓴 글입니다. 거기에는 교사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시인도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비교육적인 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자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동은 신성하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대다수가 노동자의 자식인데, 노동자의 이야기가 부정적이라니요. 자기 부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인가요? 이런 사고방식 역시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노동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함께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맞이⁴⁾, 의미없는 분별심으로 해서, 비생산적인 분열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1998.5.6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 글을 씁니다

4)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에서 인용.

제7장 일을 거치 ② 자본주의 사회 속의 교육의 한계

박영안

교실붕괴와 자본주의교육의 한계

교실붕괴의 원인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수업에 빨려들지 않으면, 교사의 권위로써 또 기타 충격요법을 동원하여 한 시간 수업을 이끌어 나갈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충격요법이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아주 충실했던 수업준비와 흥미로운 수업내용을 갖고서도 아이들을 50분간 집중하도록 잡아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 전체가 주목하여 수업하도록 하려면 10분 단위로 칠판을 두드리고, 탁자를 치고, 고함을 쳐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곳에서 수군수군, 저곳에서 촉탁촉탁, 아예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도록 떠들지만 않는다면 못 본척하고 수업을 한다. 차라리 잠이라도 자라고 타이른다.

현재 1학년 아이들은 수업자체에 거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교과내용을 왜 배우는지 목적의식이 전혀 없고, 지루해하고 따분해하며, 그냥 시간만 때울려고 앉아 있는 모습이고 전혀 판짓을 하고 있고, 옆 사람과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

교실수업에서만 아이들이 무질서한 것이 결코 아니다. 저들의 옷차림, 머리상태, 교사를 향한 결코 존경스럽지 않은 태도, 평소의 생활방식, 취미과 기호, 유행문화등 생활과 청소년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미 부적응신호와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오랜 일이다. 왜 이와 같은 “교실붕괴”, “학교붕괴” “교육붕괴” 현상이 일어났는지 나름대로 고민도 하며, 교육 개혁 토론회에도 다녀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고민은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된 고민이고 특히 1학년을 맡은 교과선생님들은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업계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실업계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취직을 보장해 주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얼마전 신문에서 “무너지는 강의실”이란 제목의 글을 읽었다. 대학생 3 명중 1명이 휴학을 하고 대학 강의를 듣는 일에 학생들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발견치 못하는 것 같다. 군입대, 외국어습득, 벤처기업, 전문자격증을 얻어서 좀 더 탄탄하고 미래가 보장되도록 스스로 자기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상황인 것이다. 대학 강의만 듣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된다는 허탈감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 교육 전체의 시스템상의 문제,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관의 문제로 보아야하고, 그러한 변화에 교육이 전혀 발빠른 대응을 해 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실붕괴의 원인으로서 단기적 이유로는 초등학교의 이상에만 사로잡힌 열린교육, 중등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수행평가를 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이유로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학생들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관통제하의 획일주의적 교육시스템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열린교육 및 수행평가의 도입등으로 교실붕괴가 서서히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지만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낡은 교육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붕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보아야한다.

교실붕괴의 장단기적 원인분석

1. 이상에만 사로잡힌 열린 교육

우리 아이들이 다인수 학급이라는 악조건 하에서 그나마 교사의 팔방미인적 연기(?)로 개별교육, 수준별 교육은 불가능 했지만 학생들을 통제하고 붙잡아 둘 수는 있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본 생활습관형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을 열린 교육의 명목으로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어버렸다. 소위 한국적 교육현실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개별교육이니, 수준별 교육이니, 개성교육이니, 열린교육이니 하는 외국나라의 온갖 좋은것만 다 끌어와서 차집기한 기상천외한 교육이념을 달성하라는 긴급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부모의 출세지향적 교육열 덕분에 공주와 왕자로 자라난 아이들이 교사의 권위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교사를 같보기 시작했으며,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초등 학교 학생들이 담임이 마음에 안든다고 교장실에 내려가 곁기리를하고, 중등학생이 교사에게 얼어 맞았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고야 만 것이다.

2. 현실에 맞지 않은 수행평가 제도

교육부에선 창의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재정을 늘려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인수 학급을 줄여 나가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창의성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제도만의 문제인양 무시험 제도를 갑작스럽게 도입하고 수행평가, 특기적성교육를 너무 급하게 서두르게 되었다. 그 결과 아이들이 더 혼란에 빠지고, 목적을 상실하고, 고삐가 풀리게 된 것이다.

현 가족부대에 새 포도주를 놓는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교육시설의 확충,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사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도 않고 임시준비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수행평가를 하고, 특기적성을 밟굴해 내라니 애초부터 실패할 것을 모든 교사들이 예견하고 있었던 바인 것이다.

교사의 체동과 위신을 땅바닥에 내팽개쳐 놓고는, 모든 교육의 문제가 교사에게만 있는 양 교사를 내리물아 왔다. 교직의 선배들은 소처럼 묵묵히 교육의 밭을 갈며 시키는 데로 만 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 나라 교육의 속죄양이 되어 교단을 내쫓기고 있다.

3. 사회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에만 치중해 온 결과 짧은 기간동안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보스주심의 정치, 재벌 중심의 경제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안목과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결과로 IMF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에 있어서도 시대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교육의 IMF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교육정책 속에서 소품종 다량생산을 이루는 획일적인 교육체계가 효율적이었고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해 내었다. 사람들의 욕구가 획일적이었고 사회도 다양성이 그렇게 중요시 되지 못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터는 개성이 중요시되고 개인의 창의성이 위력을 발휘하며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하여 다품종 소량시대로

바뀌고 말았다. 시대도 급변하며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바뀌면서 토플러가 예견한 것처럼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정부 주도하의 교육정책은 여전하며, 과거와 같은 여전한 소품종 대량생산의 교육체제를 담보하면서 외형만은 열린교육, 특기적성교육, 창의성교육을 성급하게 이루어 낼려고 별 수를 다 써보는 것이다.

학생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금방 나온 따끈 따끈하고, 잘 포장된 호빵과 같이 맛있고 신선하며 흥미롭고 현실감각에 맞는 지식을 접하는데, 우리는 5년전에 만들어진 짜집기식의 텁텁하고 맛없는 구시대적 지식과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역겹게 수업을 이끌어 가고 있지 않은가?

학생들이 사회밖에서 경험하는 세계와 학교안에서 경험하는 세계가 너무나 단절되어 있고 교집합이 없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경험과 내용으로 너무나 부적합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린 것이다.

그래서 실업학교가 문을 닫아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인문계도 이탈하는 학생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학도 150만명중 50만명이 휴학을 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분명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 중앙 통제식의 획일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교육정책에 많은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교육부만 믿고 무사안일하게 따라오면서 자기 밤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보니, 비판의식이나 분별력을 가진 교육의 주체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은 우리 교사들도 그 책임을 어느 정도는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의 교육의 한계

1. 자본주의는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임시 제도나 교육 정책 및 사회구조의 변화 등의 원인 외에도 교육이 붕괴된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이 시대에 팽배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없는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사회로 사람들을 몰고 간다.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들은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굳직한 대 기업들이 상품경쟁에 열을 올리고, 국가가 과학 기술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더 많은 기술을 독점할수록 더 많은 상품을 팔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기업체 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봉급이 차이가 나며 사회적인 대우가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대학학과의 인기순위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연결되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대학의 인문학과는 인기가 자꾸 없어져 간다. 실업계 학교의 미달 되는 정원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도 국영수 선생님의 추가가 기타 다른 과목선생보다 높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수 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 사회가 금력과 권력이 판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 교육은 본질상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어쩔 수 없는 모순이며, 인간 사회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취급하는 사회이므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내

면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는 소홀히 취급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교수나 교사들)들은 2 차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여기고 그렇게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므로 교직의 길을 택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수나 신분에 있어서 항상 주변인으로 밖에 대우 받지 못하도록 운명 지어져있는 것이다

3 대 재벌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시대 위대한 교육자나 사상가의 이름은 들어본적이 없고 배운적도 없다. 사회적으로도 교사를 그렇게 인식하고, 교사 스스로도 스스로의 자아상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된다. 교직의 길, 교수의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명예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물질지향적 가치가 교육에 침투해 들어왔고, 교육을 비인간화 시켜 가고 있다. 유명 음대 교수들의 커미션으로부터 초등학교 교사들의 춘지통장에 이르기 까지 교육은 철저히 물질적 가치에 무릎을 꿇고 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 자체의 숭고한 사명감은 다 상실한체 지식만 전달하는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생들과의 인간대 인간의 만남,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통한 감정교류나 문화전달 및 계층의 교육적 목표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학부모들도 지위 상승 욕구의 단계로서의 교육만 바라볼 뿐, 학교에서 진정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학생들도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의 이름은 알지만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는 위인 한 사람의 이름이나 생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3. 언론과 페스商会은 자본주의의 시녀이다.

자본과 권력의 시녀인 언론과 페스商会도 교육의 본질을 오도하고 과장하고 허위포장하는데 명수이다. 춘지나 학교폭력을 과대 허위 보도하여 교사의 위신과 명예를 일격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자극성있고 과장된 내용이 아니면 시청률을 높일수 없고, 돈을 벌수 없기 때문이다.

페스商会의 상업성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마저 삼켜버린다.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고양하고 키워주기보다는, 자기들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외모를 잘가꾸고, 섹시하게 보일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경쟁을 벌인다. 순간적이고 찰라적인 즐거움에 탐닉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아이들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와 고리타분한 수업을 싫어하게 되고 체질에 맞지 않는다. 선생님의 도덕적 교훈이나 무거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루한 것은 참지 못하며 진지한 대화를 싫어한다. 한 편의 영화나 비디오는 좋아해도 한편의 연극은 참관할 기회가 없다. 만화방이나 오락실을 자주 가는데 비해 서점을 방문할 생각은 가질 수 없다.

페스商会은 청소년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탕발린 달콤한 말과 영상매체로 날마다 저들을 유혹한다. 어른들 마쳐 그 유혹에 빠져 구매욕의 노예가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4. 돈을 숨배하는 자본주의의 실체

돈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IMF 위기로 도산한 사업주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장이 절망에 빠져 자살하는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가장은 온 가족을 이끌고 동반 자살을 한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썼든 대우 그룹 김우중회장이 대우가 빚을 갚을 능

력이 없음을 알고, 회사를 다른이에게 넘기고 자신은 유럽의 어느 별장에서 쓸쓸한 여생을 보내며 인생의 쓴 잔을 맛보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공룡의 위용 앞에 그 누구도 대항하거나 거부의 몸짓을 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며 날마다 메스콤을 통하여 우리에 손짓하며 자기를 추종하라고 모든 사람을 부추킨다.

자본주의는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 힘을 발휘한다. 과학기술을 독점하게 되면 더 좋은 상품경쟁력을 갖게 되고, 더 좋은 상품 경쟁력은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시녀인 메스컴은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아늑한 집, 더 편리한 생활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의 구매욕구를 될 수 있는대로 돋군다.

사람들은 이 유혹을 이길수 없고 결코 거절할 수 없다. 왜냐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며, 얼마나 넓은 평수의 집에 사느냐에 따라 우리사회의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7장 임을 거치③ 침교육실천강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2침교육운동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침교육실천강령**

<전문>

오늘 우리는 새삼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군사독재 하에서 이미 한국 사람은 경제개발의 동원대상으로 전락했던 바 있습니다. 교육은 인력동원의 수단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 하에서 그런 경향이 더욱 극심해진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때문에 교육에 대하여 새롭게 성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은 인간을 총체적이면서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을 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재능과 적성과 특기는 충분히 개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품위를 온전히 갖춘 가운데 재능의 꽃이 피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의 ‘신지식인’이 경제적 인간의 물신화된 극단적 인간관으로, 균형을 잃은 파편적 인간의 대량생산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특히 개인주의의 극한으로서 모든 공동체적 규율과 나눔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이기주의적 인간상이 신지식인과 겹쳐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신지식인의 균형 잃은 창조성이 극단적 개인주의와 만날 때의 결과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완전한 파괴일 따름입니다. 그와 같은 인간관을 우리는 신자유주의 이념에서 목도합니다.

세계를 휩쓰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 원칙적이며 사뭇 고전적인 교육 철학을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 조상이 그렇듯 중시했던 인문학에 바탕한 전인격적 인간을 우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대상화하고 극한적 파괴를 일상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전인교육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성찰적 깨달음을 요청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명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마음과 몸의 균형이 잡혀있는 총체적 인간을 키워내는 과정으로 천명합니다

제8장 상록야학 속으로 들어가기

과도기 속의 상록야학

국어교사 안주영

서론-접근하기

내게 익숙한 공간을 낯선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몇 시간을 있어도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다.

나는 지금까지 보아 왔던 상록야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술자리를 갖고, 어떻게 춤을 추고, 어떻게 토론하는지를 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속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빠져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나는 야학, 그 중에서도 상록야학이 갖는 색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상록야학이라는 오래된 조직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알아보고, 현재와 미래의 빠른 변화의 흐름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 속에서 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현재 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상록야학으로 들어서기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 내리면 바로 보이는 건물의 2층 창문에 '상록 중·고등학교, 상록야학'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건물 자체도 낡아 보이고, 창문에 붙인 글자도 오래되어 색이 바래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도 깨끗한 새것으로 바꾸어 붙이려 하지 않는다. 그 글자는 회기역에서 바로 보이는, 즉 가장 먼저 외부인의 눈에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록야학의 사람들은 그 색이 바랜 글자를 여전히 달고 있다.

또한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상록 중·고등학교'라고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록야학의 구성원인 자신이 밤에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남들이 자신을 야학의 학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반 중·고등학생처럼 봐주기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야학'이라는 단어속에는 사회적·역사적인 의미가 어느정도 남아 있어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들을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야학'은 1960년대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처지더라도 그것을 남들이 인식하는 것이 싫은 것이다. 또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그들의 가난은 빈부의 상대적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가난이지, 의식주의 생활이 어려운 절대적 가난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가난한 이들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상록야학의 이름에 대한 질문

에서 학생들은 '상록야학'보다는 '상록학교'라는 이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질문: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학교 명칭과 그 이유는?

<학생>

상록학교(10명): 야학이라는 말에서 고통이 느껴져서, 개념이 뚜렷해 보여서,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친근감이 있어서, 야학이라는 말이 없어서

상록야학(8명): 야학과 학교라는 명칭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간단명료하고 현재 일 반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친근감도 느껴지고 받음상 편리해서, 학교 규모가 타 야학에 비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상록 중·고등학교(4명): 중·고등학교 과정을 정당하게 마치는 느낌이어서

상록 야간 중·고등학교(1명): 저녁에 공부하니까

상록수학교(1명): 자존심이 있잖아요

<교사>

늘푸른 학교 상록야학(6명): 제도권 학교와 차이도 있으며, 주경야독의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름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상록야학(3명): 전통적으로 익숙해진 이름이어서, 그렇게 많이 부르기 때문에, 출직하고 당당해질 수 있어서

늘푸른 야학 상록학교(3명): 부르기에 부담없고 느낌이 좋아서, 우리 야학이 주는 인상이 다 들어가 있어서

상록학교(2명): 간결하고 명확해서, 가장 학교같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상록 야간 중·고등학교(1명): 배움의 질적인 내용을 떠나 서로 의지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교자『푸른그루』 1999년 열세 번째 中-

여기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야학'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또한 그 말이 없는 데서 친근감을 느낀다. 물론 '상록야학'이라는 명칭은 흔히들 쓰는 말이니만큼 그 말에서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야학'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심지어 '고통'까지 느껴진다고 했다.

이에비해 교사들은 오히려 '야학'이라는 말에 더욱 큰 친근감을 느끼고, 또한 제도권학교(중·고등학교)와 차이를 부여한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대학에 다니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중·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나이 많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힘들다. 이들은 대부분 야학에 올 때, 자신이 가난하고 못배운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봉사정신(많건 적건 간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야학'이라는 말을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당당해질 수 있다'고 한 말에는 동시에 그들이 어느정도 당당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야학'이 가지는 여러 의미들을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야학'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당당함'이라는 의미 속에 감추려 하는 것이다.

상록야학의 학생들 중 일부는 자신이 야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집으로 전화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

는다. 또한 교사들 중 일부도 자신이 야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이나 대학교 동료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 교무부장과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술을 몇 잔 마신 후 그는 자신이 몇 년 전까지 직장 동료들에게 야학에 다닌다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으며, 야학에서 전화가 올까봐 항상 초조해 했다고 말했다. 내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는 “왠지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다”고 얘기했다.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인식, 즉 야학이라는 곳은 웬지 일반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 같고, 야학의 역사적 측면에서 운동권적 성격을 띤 적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숨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무의식의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상록야학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속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편으로는 그것을 외부와 자신에게 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은 ‘야학’이라는 단어가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과 인식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기역을 나와서 상록야학이 있는 건물로 들어서는 골목길이 보인다. 회기역에서 곧장 위로 올라가면 경희대학교와 통하므로 그 길은 출입문, 밤집문, 악세사리점 등 화려한 건물이 많이 보이고, 길도 차가 다니는 넓은 길이다. 그러나 상록야학의 건물로 통하는 길은 매우 비좁고, 조명도 없어서 밤에는 특히나 더 음침하다. 길을 들어서면 바로 원쪽에 화장품점이 있는데 그 앞에 놓인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귀가 아플 정도로 큰 소리의 신세대 음악이 들린다. 그 길에 화장한 고등학생 남녀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심지어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 10여명이 길을 에워싸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다. 그럴때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당황하여 황급히 건물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

2층에 ‘상록야학, 상록 중·고등학교’라고 써있는 건물로 들어서면, 1층에 보습학원의 간판이 보인다. 오른쪽에는 교실의 문이 있는데, 가끔 문이 열려 있을 때면 깨끗한 책상과 의자가 보인다. 원쪽은 상담실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서면 낡은 페인트칠 위에 상록야학의 공지사항을 쓴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2층에 올라서면 나무판에 ‘상록야학’이라고 쓴 간판이 문 위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 위에 붙어있어 잘 눈에 띠지는 않는다.

그 문의 오른쪽으로는 컴퓨터실의 문이 있는데, 대개 잠겨있다. 요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고자 인터넷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나 컴퓨터의 서버 접속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컴퓨터가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학생의 정규수업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모둠(특별활동)시간에 컴퓨터반이 있어서 학생들 몇 명은 컴퓨터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신청자가 모자른 다른 모둠반들과는 달리, 컴퓨터반은 매년 신청자가 너무 많아 곤란을 겪을 지경이다. 야학의 학생들도 변화하는 시기에 맞추어 자신도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40-50대의 학생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시대에 뒤쳐진 듯한 느낌을 없애고자 컴퓨터를 배우려 하고, 10-20대의 학생들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컴퓨터를 배우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의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현재 야학의 재정상 이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상록야학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전에 야학교사였던 사람이 컴퓨터를 기증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컴퓨터를 새로 바꿀 때 그 전에 쓰던 컴퓨터를 기증하는 일도 있다. 이렇게 컴퓨터를 늘리고, 그 컴퓨터에 인터넷을 설치해 놓고 있다. 물론, 아직은 컴퓨터실의 공간이 비좁고, 컴퓨터도 낡고 10여대 밖에 안되지만, 이 문제를 놓고 다각도로 방법을 찾으려 한다.

2. 상록야학으로 들어가기

1) 변화의 상

상록야학은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40분씩 4교시 수업을 하고, 1, 2 교시를 연달아 한 후에 10분 쉬고, 3, 4교시를 연달아 한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 이러한 수업시간은 1976년 3월 5일에 개교할 때와는 조금 다르다.

당시 중랑천변에는 약 만 채의 영세민이 무허가 판자촌에 밀집되어 미취학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잃고 배움을 멀망하는 이들에게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1년 과정으로 이수시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으로 새마을 상록중학교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50분 수업으로 하루 3시간의 배움터에는 신입생 40명과 교사 8명이 모였습니다.

-교감선생님, 「1976-1996 상록야학의 출발, 주경야독의 합창속에서」 中⁵⁾

상록야학의 개교 때에는 7시부터 10시까지 50분씩 3교시를 했으나 지금은 7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40분씩 4교시를 한다. 또한 그 때는 중학교 1년 과정만 있었는데,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년 과정이다. 이렇게 바뀐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다. 우선, 시간을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바꾼 것은 학생의 연령층이 점점 직장을 가진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로 다양화된 데에 있다. 직장을 마치고 오려면 아무래도 7시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또 3교시에서 4교시로 같은 시간 속에 수업 회수는 늘린 것은 과목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겸시과목을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음악, 미술, 한문, 교양, 한율(학급회의), 모둠(특별활동) 같은 시간을 넣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야학이 너무 겸시를 위주로 하는 것을 막고자 한 노력이었다.

또 1년과정을 2년으로 늘린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연령층의 변화에 맞추고자 한 것이었다.

숙명처럼 주어진 가난에 윤며 배움을 일찍 포기하고 거친 세파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학생들, 외판님에서 첨첩산중 시골에서 상경해 와 도시의 번두리를 서성거리며 남몰래 유던 수많은 학생들, 무거운 선반을 만지고 재봉틀을 돌리고 구두를 닦고 물건을 배달하며 사환 등으로 생활하면서도 배움을 찾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탈선의 소지가 너무도 심각하게 주위에 널려 있는 오늘날의 혼탁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근로 청소년들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손을 잡을 때, 병역 문제 등과 객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혼매이며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딛고 다시 찾은 정든 학교를 또 계속하지 못하고 그들이 중도에서 펴나야 할 때 삶의 힘겨운 무게를 느껴 봅니다.

-최대천(교감), 「1976-1996 상록야학의 출발, 주경야독의 합창속에서」 中

1980년대는 이처럼 가난에 찌들어 어쩔 수 없이 야학을 찾은 근로 청소년들이 많았다. 그

5) 이 글은 상록야학의 교감선생님이 쓴 글로, 그는 야학을 세울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므로 상록야학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재정적 측면을 도울 뿐 야학의 일에는 많이 참여하지 않는 반면, 교감선생님은 국어과목을 담당하여 해마다 전 학년 수업을 모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러나 사회가 변함에 따라 이제는 가난에 짜들어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인터뷰 中-5년 이상 상록야학 교사를 한 사람-생물교사)

-교감선생님은 '야학은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데요. 정말로 제도권의 학생들이 늘어났다면 야학이 없어지고 제도권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올바른 현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야학에 오는 아이들은 양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 둔 건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서적인 이유가 더 큰 거죠. 그런데 야학의 시스템은 경제적 이유만 둘봐 왔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사들은 그런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데, 담임들조차 그렇지 못하는데요.

-포한 야학의 중요한 경험 중의 하나가 나이든 사람, 특히 30~40대 주부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90년대 중반 이후로 제가 있었을 때를 보면요. 아주머니의 비율이 해마다 고 10회+고 11회+고 12회+고 13회+고 14회+그리고 현재 고 15회는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그렇게 나이드신 주부들이 늘어나니까 상록 시스템도 그렇게 변하고, 상록 시스템이 그렇게 변하니까 또 나이든 사람이 늘어나고… 악순환이죠. 그러다보니까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수업에 들어가는 종 3반의 경우, 이들이 맨 처음 입학할 때부터 지켜봐 왔는데, 처음에는 어린 학생들이 많았다. 13살-20대까지의 학생들이 5-6명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1년 남짓해서 그만두었다. 13살이었던 두 남자아이가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가정문제 때문이었다. 그들의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부모는 그런 그들에게 학교를 다닐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 중 한 아이의 어머니는 오히려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말고, 경정고시를 빨리 합격해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꾸준히 야학에 나오다가 그 두 아이가 친해져서 둘이 같이 빠지는 날이 많아지는 거였다. 그러다가 어느 일요일에 야학에서 그 두 아이와 그 아이들보다 나이가 서너살은 많은 두 여고생이 컵라면을 끓여먹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뒤 그들은 종종 야학에 숨어있는 것이 발견되다가 들키자 그 뒤부터 야학에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6시에 하는 교사회의에서 큰 문제화되자 그때서야 교사들은 그 아이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졌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그 아이들의 잘못을 걱정하는 것도 있었으나, 그 아이들이 야학의 열쇠를 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라면을 끓여먹으면 불이라도 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컸다.

나 역시 그제서야 그 아이들이 그동안 한 아이의 자취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먹으며 생활을 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고생을 챠팅을 통해 만나서 함께 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후 가끔 길에서 그 아이들과 마주쳐도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말해 주고, 혼을 내기가 힘들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의 수업에 들어오는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인터뷰를 했던 교사가 그나마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탁구도 치러 가고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이지 않자 곧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 아이들이 상록야학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그 아이들의 끈기가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야학의 분위기 때문이기도 했다. 야학의 수업 시간은 물론 행사도 모두 30-40대의 아줌마들을 위주로 행해지고 있다. 야학의 나이든 학생

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시간에 그것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쉬운 계산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것을 빨리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든 여학생이 태반이므로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시를 빨리 합격하고 싶어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은 그게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상록야학의 행사를 보면,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술자리문화와 노래방에서의 춤문화이다. 야학의 술자는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대부분 어떤 분위기의 술자리를 고집한다. 술의 종류는 막걸리를 선호하는데, (젊은 층이 많이 있을 때는 맥주를 마시기도 하지만) 상록야학에서 행사가 끝나고 다같이 술을 마시러 갈 때는 대부분 야학 근처의 파전 골목에 있는 '낙서집'이나 그 옆의 다른 막걸리집에 간다. 가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학생, 교사들에게 노래를 흔들거나, 30-40대 아줌마들이 대부분인 학생들은 주로 그 시대의 유행가 트롯트를 부른다. 그 속에서 대학생 교사들은 무엇을 불러야 할지 굉장히 망설인 끝에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나 '남행열차'같은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노래를 아는 정도에서 찾아서 부르곤 한다. 간혹 어린 학생이나 어린 교사들이 조용한 발라드를 부르면 나이 많은 여학생들은 노래를 잘 듣지 않고 서로 술을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술자리가 끝나면 대부분 2차로 노래방에 가는데, 처음에는 각 반마다 방을 정해서 부른다. 노래는 거의 흥겨운 트롯트, 그것이 길게 이어진 '트롯트 메들리'같은 곡을 주로 택하고, 학생들은 노래가 나오자마자 일어서서 격렬하게 몸을 흔든다. 그 속에서 나이 어린 교사들, 특히 나이 어린 신입교사들은 무척 당황해하면서도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기색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그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아줌마들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수업시간이나 행사에서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더구나 행사에서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므로 대인관계형성에 문제가 생겨 학교에 나오기가 점점 싫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의 야학은 70, 80년대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잊기가 힘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권리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야학은 학생들의 성, 연령의 변화속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는 과정기에 있는 것이다.

2)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상록야학은 중학교 2년, 고등학교 2년과정으로 되어있고, 교실은 중학교 2개반, 고등학교 2개반이 있다. 8개월이 정규 학교의 1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입생 입학식은 9월 초에 한다.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인데, 이는 검정고시가 매년 4월, 8월에 있으므로 이것이 모두 끝난 뒤인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정한 것이다.

상록야학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교무실이다. 교무실에는 정규 학교의 교무실처럼 교사마다 각 개인의 책상은 없다. 몇 개의 책상을 붙여서 가운데에 놓았고, 그 옆으로 새로 산 복사기가 보이고, 그 옆에는 컴퓨터 한 대가 있다. 나무로 된 의자는 너무 오래되어 까칠한 나무가시가 몸에 박힐 정도이다.

교무실의 문이 오른쪽으로 붙어있는 통로는 그자리 쪽으로 들어가면 교실로 통한다. 교무실의 문 바로 옆에는 커다란 유리가 달려있어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그 유리 밑에는 '즐거운 눈인사'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학생들과 교사들이 눈인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유리라고 한 말인 듯 하다. 실제로 그 유리를 보며 교무실에 있는 교사들과 지나가는 학생들의 눈이 서로 마주치면 가볍게 눈인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일 경우에는 어색하게 지나가기 마련이다. 교사들 중에는 두 반 이상 수업을 하고, 오래 상록야학 생활을 해서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신이 수업을 하는 한 반의 학생만을 알고, 아직은 상록야학에 어색한 신입교사들도 있다. 신입교사들은(특히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과 눈인사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학생들이 처음 중학교에 입학하면 인원이 약 50-60명에 이른다. 중 1반은 그래서 교실이 가장 넓고, 조용한 곳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이들이 중 2-2학기가 되면 그 맞은편 교실로 옮겨야 한다. 그 교실은 바로 회기역 옆에 있어서 약 10분 간격으로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교실도 전의 교실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때 이들의 인원은 20-2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다. 또 1년이 지나 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들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줄어드는 대신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이 생겨나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의 인원은 25-30명 가까이로 된다. 이 교실도 역시 중 1반 교실처럼 회기역과 면해 있는 곳 맞은편이므로 훨씬 조용하고, 교실도 중 1반보다는 작지만 중2반보다는 크다. 그러나 이들이 고2-2학기가 되어 또 교실을 옮길 때는 이들의 인원이 다시 10-15명으로 줄어 고 2반은 가장 크기가 작은 교실, 회기역과 면해 있는 시끄러운 교실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학년에 따라 학생수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먼저 학생들 스스로의 끈기가 부족해서 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사회적 원인과 상록야학 내부의 원인이 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70-80년대를 거쳐오는 동안 여성이 교육을 받을 기회는 남성이 교육을 받을 기회보다 현저히 낮았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여성은 같은 형제인 남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은 희생되어야 했고, 심지어 자신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을 잘 보여준 드라마가 몇 년 전에 MBC에서 한 드라마 '아들과 딸'일 것이다. 이처럼 여성은 교육에 있어서 소외를 당해 왔으므로 그들이 자라 40-50대가 되고 이제 경제적 여건이 어느정도 나아졌을 때에는 배움의 한을 풀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배움의 한'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수업시간에 보여주는 그들의 놀라운 집중력과 노력을 생각해서이다. 그들은 나이가 많으므로 수학이나 과학같은 사고의 체계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수록 그 수업시간에 집착하고,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겸정고시가 다가오면 보충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일요일까지 야학에 나온다. 50대 후반이나 심지어 60대의 학생들은 수학시간에 진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도 칠판에 써있는 것은 무조건 모두 받아들여 노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서 50-60대의 나이 많은 학생들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하는 수업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지만, 지난 삶에 대한 한과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그런 한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수학이나 과학같은 과목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다른 사람에 맞춰서 하는 진도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칠판에 있는 것을 열심히 받아 적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신이 공부할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는 한스러움만 남아서 야학을 그만 두는 것이다.

상록야학의 주된 학생인 40-50대가 야학을 그만두는 이유는 대부분 사회적 원인이다. 그들은 우선 가정에서 주부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무슨 다른 일을 하든, 가정의 일을 거의 도맡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생각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강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여성은 더구나 밤에 야학에 다니는 것은 가족

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하고, 또한 본인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매일 매일 계속되는 야학에서의 학생과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 모두를 잘 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또한 상록야학의 이들 여학생 중 50%정도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도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 남편 없이 혼자가 된 경우,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등 여성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는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야학에 입학했어도, 직장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나 집안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빠지게 된다. 그렇게 빠지게 되면 진도를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학을 그만 두게 된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0-20대의 젊은 학생들이 야학을 그만두는 이유는 야학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40-50대 여학생에게 치우쳐 그 분위기에 적응할 수 없다는 데 1차적 원인이 있다. 또한 그들이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유가 경제적 원인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학의 교사들은 그러한 이유들을 모두 포용해 주고 관심을 가져 줄 만큼 시간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교사를 또한 대학생 아니면 직장인이므로 자신의 주된 시간을 야학에서 보내기가 힘들다. 또한 대학생 교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야학의 수업시간을 갑자기 다른 사람과 바꾸거나, 아예 아무 말도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직장인들 역시 갑자기 야근을 할 경우에, 그 야학시간에 대신 수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수업시간은 빙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지키기도 벅찬 경우가 있는데, 더구나 그 외에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과 상담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교사 결강에 대해 글을 쓰라는 부탁을 받고 솔직히 고민을 했다. 이거 상록에서 괜히 미문될 박하는 거나 아닌가 해서였다. 그래서 편집부로부터 여러 번 독촉을 받으면서도 미루어 오다가 오늘에야 이 글을 쓴다. 상록에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하시고,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은 분들이시다. 요즘같이 폐락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 분들에게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교사 분들의 결강문제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사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결강 그 자체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곳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결강은 절대 안되는 것이다. 결강을 꼭 해야 될 입장이라면 미리 양해를 구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99년 총학생회장 고 2 「결강, 이젠 그만!」 -

총학생회장은 교사 결강 문제를 놓고 교사들에게 말할 때 무척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가 자신이 약속한 수업시간을 빠지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연한 것을 교사에게 요구할 때조차 학생들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학생들이 자신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야학에 다니고 있고, 그것은 모두 여러 교사들이 무료로 가르쳐주기 때문이므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교사들에게 감히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록야학에서는 시험을 2달에 한 번씩 보는데, 어떤 과목을 보기로 약속한 시간에 교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도 학생들은 마음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억지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말하지 않고, 교과 외의 다른 얘기만 매 번 한다고 해도 그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진 못한다. 물론 그것이 심해지면 간혹 어떤 학생이 "선생님, 수업해요"라든지 "선생님,

좀 쉽게 가르쳐 주세요” 같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다.

간혹 상록야학의 학생이 교사를 심할 정도로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규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단순히 속으로 짹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자신보다 서너살 많은 여교사를 짹사랑해서 여교사를 거의 스토퍼 수준으로 괴롭히다가 끝내는 영동교를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또 내가 사귀고 있는 남교사를 짹사랑하는 10살 아래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우리가 같이 있는 걸 본 후로 나에게 전혀 인사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내 핸드폰으로 욕을 담은 메세지를 보낸 일도 있다. 그 여학생은 지금은 야학에 다니지 않지만, 17살인 그 아이는 대검⁶⁾을 지난 4월에 합격하고 나서 야학에서 가는 수학여행에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여행 내내 나를 못 본 척했다.

정규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상록야학에서는 그런 경우는 정말 생각하기가 힘들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볼 때, 처음부터 마음의 벽을 갖고,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배우는 자들이라는 전제 하에 그들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친절을 베풀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에게 다가서는 것은 차단하는 것이다.

신림동에 있는 ‘남부야학’의 경우 학생을 ‘학강’이라고 부르고, 교사를 ‘강학’이라고 부름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의 커다란 간격을 조금이라고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상록야학에서는 이런 단어가 없다. 상록야학은 정규 학교와 비슷한 교실 구조 속에서 정규학교와 비슷한 과목들을 가르치고, 교사와 학생이라는 정규학교와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거리는 정규학교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

3) 과도기 속의 상록야학

① 주 5일제 수업

96년에 주 5일제 수업제도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수업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우므로 토요일을 빼고 주 5일제 수업을 하자는 제안이 그 당시 신입교사들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상록야학에 오래 있었던 교사들은 주 5일을 하면 학생들이 수업의 리듬이 깨지고, 또 토요일을 빼면 교양, 한문, 음악, 미술 같은 과목들을 뺀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검정고시를 위한 야학을 되어 버린다면서 반대했다. 두 집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공청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결국 주 6일제에 더 많이 손들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주 6일 수업을 하면 모두 나오지 못하고, 특히 토요일에는 빠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더 많이 수업을 해 주면 좋다는 생각과 웬지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욕심으로 인해 주 6일제 수업에 더 많이 찬성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논의의 결과는 있었다. 그 전에는 공휴일에도 수업을 했는데, 결충안으로 공휴일은 쉬게 되었다. 매년 ‘상록의 밤’이라는 학예발표회를 했었는데, 그것이 부담되므로 한해는 일일호프를 하고 격년마다 번갈아 하기로 했다.

6)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해 주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단, 대학입시제도에 따라 수능을 봐서 대학에 합격해야 함.

② 교감선생님

상록야학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교감선생님을 들 수 있다. 교장선생님은 상록야학의 개교부터 재정적 측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으로, 지금은 중요한 학교 행사때만 와서 '교장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 상록야학에 있어 고마우신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교감선생님은 다르다. 개교 이래로 상록야학의 실제적인 거의 모든 일들을 해 왔다. 지금도 4반 모두 국어 수업을 한 시간씩 무조건 한다. 일년의 시간표를 정할 때, 교감선생님의 국어 수업시간을 그가 원하는 시간에 배치한 후에 나머지 수업 시간표를 정한다. 그가 정하는 수업 시간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또한 그가 들어가는 네 반의 1시간의 국어 수업시간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국어 시간이 3시간 있는데, 그 중에서 2시간은 다른 국어 교사가 하고, 1시간을 교감선생님이 하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한 과목에 교사가 둘일 경우에 시험 문제를 나눠서 내고 한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유독 국어 시험만 두 시간에 걸쳐 따로따로 봐서 나중에 두 개의 점수를 합치는 것이다.

몇 년전 주 5일제 수업 추진 논쟁과 교사조직 체계화 등 여러가지 여론이 있어서 교무부장은 직선제 선출 뽑고, 최교사는 교감선생님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 때 교감선생님, 교무부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교무부장은 매년 8월 교사회의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1년이다. 한번은 학교 행사 일정상 교사회에서 시험요일을 바꾼 적이 있었다. 그 때, 교감선생님은 교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시험요일이 바뀐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즉각 다시 바꿨다. 이것을 놓고 교무부장이 교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항의 했지만, 이미 시험시간표가 짜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항의만 한채 결국 그대로 진행시킬 수 밖에 없었다.

상록야학은 회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다. 교무부장이 지금의 상록야학의 교사회 회계보고를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 했지만, 매월 교사회의 회계보고는 아직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이 보고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회계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월반, 전입 학생

상록야학은 중 2년, 고 2년 과정으로 되어있다. 학생이 처음 중학교 과정에 입학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과목을 모두 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중학교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중학교 2년 과정을 다 마쳐야 고등학교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을 하다가 40-50대 여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느리게 나가는 진도에 불만을 갖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상록야학의 교사들, 특히 교감선생님과 야학에 오래 있던 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한다. 이 교사들은 그 학생들이 월반을 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까지 월반을 부추기게 되고, 월반을 해도 진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반 분위기에 적응하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반대한다.

또한 상록야학은 7, 8월에 주로 상록야학 근처의 지역에 신입생 광고를 붙이고, 8월에 신입생을 모집하여 9월 초에 입학식을 한다. 그런데 입학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입학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학생들을 받아주지만, 학기가 시작된지 한참 후에는 학생들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나중에 온 학생들은 처음 온 학생들과 진도가 많이 차이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중간에 들어오면 반분위기에도 적응을 잘 할 수 없고,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록야학의 교

사들은 4반을 각각 분리해 놓고, 그 반의 분위기도 각각 다르다고 규정짓고 있다. 또한 그 반의 구성원은 처음부터 상록야학의 과정에 따라 상록야학에서 규정한 과목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지 과정의 중간에 들어오거나, 과정의 중간에 일부를 건너뛰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규정한다.

태청야학에서는 학생 본인이 월반을 원하는 경우에 담임과 주임 교사가 학생의 실력 점검을 통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태청야학의 경우 과목별(수준별) 분반 체제이기 때문에 월반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성급한 단정일 수 있으나 태청야학의 존재의미는 검정고시를 패스하는데 있어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있는 것 같습니다.

파랑새야학의 경우 중등 1년, 고등 1년 과정으로 수업 자체가 속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반의 여지는 없고 유급의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나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진행의 속도가 부담이 되기에 진도를 앞서나가는 학생들의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월반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입학 초기에 본인의 실력대로 받아들이 있어서 반 분위기 저해나 편입의 부적응의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랑새 야학의 교감선생님의 말씀이 입학 초기부터 생활공동체로서의 야학의 입장/체제를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에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하는 기능적인 공간으로만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부야학은 10명 안팎의 학생이라서 월반이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인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와 함께 기타 월반이 거론되고 있는 타 야학들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반허용에 있어 야학의 규모와 교육기간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시할 만한 점입니다. 야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기간이 짧을수록 월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가 적었다고 판단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상록야학같은 큰 규모의, 교육기간이 긴 야학) 월반 허용시 파급되는 바가 크기에 상당히 민감하고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 「신입교육> 월반문제의 인식과 대응」

97년 신입교사 제3토론팀 : 강산봉, 변성연, 이주한 (<http://sangrok.yahoo.co/>) -

이처럼 타 야학의 경우에는 월반문제를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비교적 융통성 있게 다루는데 반해 상록야학은 월반문제를 신중히 고려한다. 2000년에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월반하고자 한 학생이 2명 있었는데, 이를 중 월반이 실제 가능했던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1명 뿐이었다. 그 학생은 검정고시에도 합격하고, 상록야학에 매일 나와서 공부도 열심히 했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의 월반을 허락해 준 과정에는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의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월반을 허락해 준 것은 요즘 상록야학의 변화의 한 양상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④교사의 과목

99년에 처음 들어온 신입교사들 중, 영어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발음이 별로 좋지 않다는 몇몇 교사들의 판단으로 윤리교사를 맡게 된 40대의 교사가 있었다. 그 교사는 일년동안 윤리교사를 했지만, 다음 해에는 영어교사를 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99년에 같이 들어온 한 영어교사가 다음 해에는 바꾸자고 제안해서 그 둘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그

것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했고, 그 반의 담임교사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상록야학은 2년제이므로 한번 과목을 맡으면 2년은 해야 하며,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마음대로 과목을 바꾼 일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과목을 바꾸지 못했고, 윤리교사였던 40대의 대학생은 상록야학을 그만두게 되었다.

결론-상록야학을 나오기

상록야학은 지금 과도기에 놓여 있다. 야학이라는 고정된 조직의 형태 안에서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껏 특정한 야학의 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그것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야학의 학생층이 변화했고, 학생들이 야학에서 원하는 것들도 변해 왔다. 그들은 이제 겸정고시를 합격하고자 하는 욕구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뚜렷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고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야학에 꾸준히 나오는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욕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이것을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록야학은 야학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학생들만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중도 탈락자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을 시간이 없고, 교사와 학생 간에는 벽이 존재한다.

상록야학은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존재해 왔으며, 견고한 조직적 틀 위에 놓여 있다. 남부 야학이 99년에 교육청의 폐교조치를 받고 땅 주인의 이전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남아 있는 인원은 고작 몇십명 뿐이었고, 남아있는 돈도 얼마 없었다. 그들은 그 때 심각한 존폐 위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상록야학은 그러한 존폐위기까지 간 적이 없다. 중간에 한 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이 곳으로 이전한 이후로 앞으로 더 나은 공간으로의 이전까지 바라보고 있다.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에 이전할 준비까지도 미리 하고 있는 것이다. 튼튼한 재정적 기반 아래서, 개교부터 깊게 뿌리내린 교사들의 견고한 체제속에서 상록야학이라는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상록야학은 그러한 체제의 견고성에서 탈피하여 점차 개방적으로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도 역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고정된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상록야학은 '야학'이라는 이전의 개념을 부정하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역할과 개념을 모색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제 상록야학은 인터넷 실습 수업까지 시도하고 있다. 아직은 재정적, 공간적 한계가 있지만 변화에 발맞추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 속에서 상록야학만이 갖는 색깔, 상록야학이 가지는 역할을 계속 찾고자 한다.

제9장 교실수업 강의법

본 자료는 교사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여야 효과적인가에 대해 정리된 것입니다. 한 번 읽어 보시고 수업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교수법의 선행조건

보다 효율적인 수업운영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야 하며, 자기 교과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수준과 심리적 상태, 주변환경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교과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훌륭한 수업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교육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의 상호작용이므로,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 강의법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날 수업의 목표와 전체 과정 속에서의 연관성 및 전시 학습목표와의 연결성에 대해 스스로 명기해야합니다. 이러한 사전 정리가 없이 수업에 임하면, 교사는 꼭 해야할 것을 잊을 수 있고, 학생들 역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게 됩니다.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그날 수업의 목표를 칠판에 명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에는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혼자서 공부할 때에도 '지침'이 됩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평가의 기준이 되며, 일목요연한 수업운영을 이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시간 이렇게 학습목표를 명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교사의 성의와 인내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강의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입-전개-정리. 도입단계에서는 전시간의 정리 및 이번 시간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전시간의 정리 및 이번 시간의 소개에서는 수업목표 소개 및 수업전개를 위한 흥미유발을 위한 발문(發問)을 해도 좋습니다. 시간은 3-4분 정도가 좋습니다. 전개는 그날 수업해야 할 것을 진행하는 것이며, 정리는 그날 한 수업을 정리하고 다음시간 수업을 예시하는 것으로 4-5분 정도가 좋으며, 그날 한 것에 대해 질문할 여유를 꼭 주어야 합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친 후 정리할 시간도 없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미 산만해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의 시에는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주려는 것보다 꼭 필요한 내용만 엄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둥이가 작은 병에 물을 쏟아 붓는 것 보다는, 한방울 한방울씩 넣는 것이 더 현명하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강의 내용의 항목, 개요, 예시 등을 적은 카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서할 내용 뿐만 아니라 적절한 예시를 미리 고민하여 준비하면,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시에 필요한 일반적 기술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언어는 직관적이고 정확하며, 명랑해야 한다.
- * 언어를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선택·사용한다.
- * 학습자의 반응을 수시 포착하여 자연스럽게 강의에 변화를 준다.
- * 교사자신의 음성, 음감, 음색을 조절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권태를 느끼지 않도록 한다.
- * 강의 중 시간을 안배하여 가끔 유머를 사용하며 긴장감을 풀어준다.
- * 교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적, 언어적 버릇은 빨리 교정한다.
- * 강의시에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학습자를 대한다.
- * 강의의 끝맺음을 정확히 하는 뜻에서 반드시 요약 설명해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 교사는 항상 자신 있는 태도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안정과 흡수를 유도한다.
- * 야유나 희롱은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야하며, 화내는 일은 금물이다.
- * 소재의 선택은 학습자들의 경험범위의 사건으로 한다.
- * 모른다는 학생의 반응 후엔 암시를 주어 답을 스스로 찾도록 한다.

3. 학습자에게 질문할 때의 교사의 태도

질문은 학급 전체에게 한 다음 한명을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만을 지적하여 질문하면 그외 학습자들은 방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대한 질문은 응답속도를 빠르게, 사고에 대한 질문은 응답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교사는 기다리는 여유있는 태도와 응답이 맞았을 때는 큰 칭찬으로 강화를 주고 틀린 대답시 틀린 이유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습자의 질문에 대해 교사는 아무리 질문이 안되는 말이라도 일축해서는 안되며, 교사가 잘 모르는 내용인 경우, 솔직하게 모른다고 시인하고, 그 다음시간에 꼭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가설을 정설처럼 말하는 것

은,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예의바른 태도로 질문하게 할 의무가 교사에게 있습니다.

4. 평가법

평가란, 교수-학습활동이 교육목적에 알맞게 실행되었는지, 본래의 의도한 수업목표를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또는 학습의 결과가 기대했던 수준에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체계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만약, 평가를 학기말이나 학년 말에 시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는 일로만 생각한다면, 수업과정과 평가는 명백히 서로 구별되는 활동이라 하겠지만 평가의 기능은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재어보는 일 뿐만아니라 수업과정의 내부에서 도입행동을 진단하거나 수업이 계획대로 잘 진전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수업평가의 유형과 기능은 진단평가, 형성평가, 종합평가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단계에서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출발점 행동을 예진하고, 학습의 장애요인을 진단하여, 효과적인 수업의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발점 행동 진단이란 계획된 학습 과제를 학습해 나가는데 필요한 선수적 학습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진단이 없이 수업을 진행한다면 개인차는 더욱 커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진단평가의 방법은 선수적 학습요소를 교사가 뽑아내어, 쪽지시험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개별학습을 시키거나 선수학습 후 진행을 하거나 수업계획을 변경시키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형성평가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교수와 학습의 진전상황을 평가하므로써 교사와 학생에게 피드백(feed-back)을 주어 학습을 증진시키고,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성평가의 방법은 소단원에 대한 쪽지시험이나, 구두시험으로 할 수 있고 수시로 평가해야 합니다. 형성평가는 적절한 간격을 두고 그 동안의 학습행동에 대한 성과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계속 잘한 학생은 자신감을, 못한 학생은 분발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강화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형성평가는 성적에 반영해서는 안되며, 그 결과가 내적 동기유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자 자기 답안지를 채점하도록 자기가 맞은 항목은 무엇이며, 틀린 항목은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학습진행속도 조절

및 교과내용을 적절한 단위로 나누어 실시하므로써 학생들에게 적은 부담을 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종합평가는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분석 종합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주로 중간고사·기말교사의 형태로 치러집니다. 이때에 개인차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제 작성시, 개념, 이해, 분석 종합 등의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평가 후 평균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학습 진단 전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검정고시 제도 알아보기

상록야학 학생분들은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상록야학 교육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때로는 상록야학이 검정고시 준비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교사의 수업목표가 검정고시가 절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학생 거의 모두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있으므로, 참고로 현행 검정고시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중입 검정고시 시행요강 ◆

응시자격 및 제한

중입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만12세 이상의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재학생은 응시할 수 없으며,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험과목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이상 필수 9 과목

출제범위 및 방법

중입검정고시는 90년도 이후 발행한 초등학교 교과서인 제5, 6차 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방법은 100%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 시험방법 : 100% 객관식 (4개중 1개 고르기) 각 20문제 출제
- 출제경향 : 4학년과정-20%, 5학년과정-30%, 6학년과정-50%
- 합격점수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또한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 하여

다음시험에서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합격한 과목 (60점 이상)도 점수가 낮을시 평균점수를 높이기 위해 다시 응시 할수 있습니다.

시험응시에 필요한 서류

1. 응시원서1통

응시원서는 시험공고가 나면 응시할 지역의 교육위원회나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명함판 사진2매

반명함판 사진은 최근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다.

3.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에 필요한 각 시행교육청이 정하는 금액의 수입 증지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과목합격증명서 1통

과목합격증명서는 지난고시에서 과목합격을 한 사람이 과목면제를 원할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사람은 당회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통

주민등록등초본은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시험시기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중학교 입학 자격검정고시는 매년 5월에 1회 실시합니다.

시험공고는 고시시행 2개월 전에 대한매일 및 일간지에 고시의 기일과 장소, 원서 접수 및 기타 고시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공고되며 합격자 발표는 매년 6월에 각 시,도 교육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입 검정고시 시행요강 ◆

응시 자격 및 제한

1. 초등학교 졸업자

2.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3.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인정이 되는 중학교에서 제적된 자 (시험일 기준 8개월전에)

4.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5.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단, 중학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자나 재학중 또는 휴학하고 있는자,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의무교육 대상자 및 초등학교 재학생은 고입검정고시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시험 과목 (8과목)

필수(6과목) : 도덕,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2과목) : 선택1 - 체육, 음악, 미술, , 한문, 중 1과목

선택2 - 기술, 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중 1과목

출제범위 및 문제수준

- 중학교 제6차 교육과정 (1995년도 이후 발행한 중학교 교과서)을 기준으로

- 중학교 전 과정에서 골고루 출제한다.

-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한다.

-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1형으로 출제한다.
 - 예상 난이도는 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에 가깝도록 한다.
 - 교과의 문항 출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변별도를 높이고 단원 목표별, 요소별로 골고루 출제한다.
-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출제문항수는 매 과목당 25문항으로 한다. (단 수학은 20문항)

원서 접수시 구비 서류

- 겸정고시 응시원서 1부 각 시,도 교육청 소정 서식
 - 사진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2매 (동일원판)
 -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1매 (4,000원부터 18,000까지 각 시,도에 따라 다름)
 - 겸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의 학력증명은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졸업,졸업예정,재적) 증명란에 본인의 최종학력을 받아와야 한다.
- ※ 응시원서에 최종학력 증명을 받지 않고 별도의 졸업,졸업예정,재적증명 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는
- 원서 접수처에서 인정받지 못함.
- 겸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1부
 -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 증명서 1동
(단,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사람은 당회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인 수첩제시 (사본제출)

시험시기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 입학학력 겸정고시는 전국 16개 교육청의 협의에 의거하여 매년 2회 시행됩니다.
고졸겸정고시 제1회 시험은 4월초에, 제2회 시험은 8월초에 시행되며
시험공고는 고시시행 2개월 전인 2월초와 5월말에 대한매일 및 일간지에 고시의 기일과 장소,
원서 접수 및 기타 고시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공고됩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5월초에 제2차 합격자 발표는 8월말에 각 시도 교육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대입 겸정고시 시행요강 ◆

응시 자격 및 제한

1. 중학교 졸업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겸정고시 합격자
3.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인정이 되는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자 (시험일 기준 8개월전에)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

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집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5.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9년이상 학교 교육과정 수료자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 교육 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이수자, 또는 소년원 법에 의거 중학교 교육과정이수자

시험 과목 (9과목)

필수과목(7과목) : 윤리,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국사

선택과목(2과목)

선택1 - 체육, 음악, 미술, 한문, 교련 총 1과목

선택2 -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업, 진로·직업,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에스파니아어, 러시아어 총 1과목

출제범위 및 문제수준

- 일반계 고등학교 제6차 교육과정 (1995년도 이후 발행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서)을 기준으로 한다.
-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골고루 출제한다.
-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한다.
-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1형으로 출제한다.
- 예상 난이도는 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에 가깝도록 한다.
- 출제문항수는 매 과목당 25문항으로 한다. (단 수학은 20문항)
- 문제지는 (A)형 (B)형으로 구분됨 (문제내용은 동일하나 배열순서만 다름)
- 교과의 문항 출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변별도를 높이고 단원 목표별, 요소별로 골고루 출제한다.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원서 접수시 구비 서류

- 경정고시 응시원서 1부 각 시,도 교육청 소정 서식
- 사진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2매 (동일원판)
-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1매 (4,000원부터 18,000까지 각 시,도에 따라 다름)
- 경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의 학력증명은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졸업, 졸업예정, 재적) 증명란에 본인의 최종학력을 받아와야 한다.

※ 응시원서에 최종학력 증명을 받지 않고 별도의 졸업, 졸업예정, 재적증명 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 접수처에서 인정받지 못함.

-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인 수첩제시 (사본제출)
- 경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1부
-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 증명서 1통
(단,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사람은 당회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시험시기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전국 16개 교육청의 협의에 의거하여 매년 2회 시행됩니다.

고졸검정고시 제1회 시험은 4월초에, 제2회 시험은 8월초에 시행되며

시험공고는 고시시행 2개월 전인 2월초와 5월말에 대한매일 및 일간지에 고시의 기일과 장소,

원서 접수 및 기타 고시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공고됩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5월초에 제2차 합격자 발표는 8월말에 각 시도 교육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론일지 1

토론 1. 야학의 역사와 현재

♣ 토론준비

* 야학에, 그리고 상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학은 흔히 정규교육을 못받았던 사람들이 뒤늦게 만학열을 불태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과연 이것이 야학의 전부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야학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내가 생각하는 ‘야학이란?’

1. 야학의 역사 공부하고 나서 느낀점?

2. 나는 야학에 왜 왔는가?

3. 사람들이 야학을 찾는 이유는?

4. 야학의 역할은?

♣토론 후

*다시 알게된 ‘야학’과 ‘상록’에 대해 써보세요.

1. 여전히 야학이 존재하는 이유

2. 사람들이 야학을 통해 얻고 싶어하는 것들

3. 상록야학이 할 수 있는, 해야하는 역할은?

4. 내가 상록야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토론일지 2

토론 2. 상록의 교사와 교육관

♣토론준비

1. 여러분은 교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사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상록야학에서 교사란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지, 무엇을 가슴에 담고 교실에 서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1) 내가 생각하는 ‘교사는 모름지기 아래야 한다.’, ‘교육이란 이런 것이다.’

2) 야학이라는 공간에서 교사의 역할

3) 나는 이런 교사가 되고 싶다.

2. 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검정고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야학을 찾아오고 자연히 수업에서도
검정고시를 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검정고시란 무엇일까요?

1) 검정고시란?

2) 검시(검정고시)일정

3) 검시 과목

4) 검시 응시 자격

5) 검시 합격 시 주어지는 혜택

6) 상록에서의 검시준비

♣토론 후

1. 상록 야학에서의 교사의 역할

1) 수업은 생명이다!! 절대 엄수!!

2)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3) 내가 알게된, 상록에서의 또 다른 교사의 역할

2. 검정고시! 선택인가? 필수인가? 아니면.....?

3. 내가 느끼는 '상록의 교육과 교사, 아래야 한다.'(상록의 교사관과 교육관)

4.나는 상록에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교사의 임무를 다하리라!!

(그냥 가르치기나 잘 하지, 머...아니야...내가 뭘 할 수 있지?)

토론 3. 상록의 조직과 교사의 업무

♣토론준비

* 상록교사들은 오로지 수업시간에 수업하는 것만을 목표로 이곳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록야학에서 수업하는 일 외에 우리가 해야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학교’에는 어떤 조직이 있을까요?

- 교사회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교무부 조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담임과 분과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 당직교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2. 학교의 많은 행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3. 축학생회에서는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 봅시다.

♣토론 후

1. 상록 야학 교사의 역할

(1) 수업(수업을 생명처럼!!):당신에게 수업은.....

(2) 당직서기

(3) 행사 참여

-상록의 행사들에 대해서는 앞의 자료집을 참조하세요

(4) 업무 분담(교사조직 참여)

-자료집을 참고로 각 조직에서 해야하는 역할에 대해 정리해보세요.

(5)교사회의

-교사회의는 한달에 한 번, 상록의 교사들이 모여 학교의 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참여한 후, 보고 느낀 점 등을 적어보세요.

8월 교사회의

*일시 :

*장소 :

*사회 :

*참석자 :

*진행 시간 :

진행순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나?	좋은 점, 나쁜 점
1.각반 보고		
2.분과 보고		
3.회계 보고		
4.총학생회 보고		
5. 교무보고		
6. 주요안건 및 기타안건		

함께 하는 상록 수업 평가일지

이제 상록에서 수업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직접 참여하시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야학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학력, 재산, 성, 지위 등에 따른 차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과 인간으로서 소통하며 어울려져 나가는 다른 질서의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우러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사와 학생간의 어우러짐입니다. 야학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들의 만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수업입니다. 분명히 야학에서 수업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야학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남을 시작하는 끈으로서, 또 그 관계 유지의 기본적인 매개로서 수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주축으로서 수업은 교사들을 수업준비와 교과 모임 속에서 이어주고, 학생들은 한 학급에서의 피수업자로서 공동의 정체성을 지닌 이들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야학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운동의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학은 참다운 교육의 구현을 통하여 구성원의 자기 개발, 자아 실현을 이루고 더 나아가 사회의 진보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함을 분명히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운동은 현 사회 속에서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야학의 구심점이 될 수 있고, 수업은 형식적인 틀에 얹매이기 않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그 주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배움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요, 가르침이란 다만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참관일지 1

참관수업일지 (1)

1. 20 년 월 일 교시
2. 수업과목 :
3. 수업진행교사 :
4. 수업진행교실 : 중, 고 학년 반
5. 참관교사 :

평가항목	평가내용
수업 시작 방법	
판서 및 자료 활용	
시선 처리, 성량, 언어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수업 내용 전달 (설명 방법, 난이도)	
수업 마무리 방법	
수업 시간 조정	

참관일지 2

참관수업일지 (2)

1. 20 년 월 일 교시
2. 수업과목 :
3. 수업진행교사 :
4. 수업진행교실 : 중, 고 학년 반
5. 참관교사 :

평가항목	평가내용
수업 시작 방법	
판서 및 자료 활용	
시선 처리, 성량, 언어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수업 내용 전달 (설명 방법, 난이도)	
수업 마무리 방법	
수업 시간 조정	

참관일지 3

참관수업일지 (3)

1. 20 년 월 일 교시
2. 수업과목 :
3. 수업진행교사 :
4. 수업진행교실 : 중, 고 학년 반
5. 참관교사 :

평가항목	평가내용
수업 시작 방법	
판서 및 자료 활용	
시선 처리, 성량, 언어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수업 내용 전달 (설명 방법, 난이도)	
수업 마무리 방법	
수업 시간 조정	

참관일지 4

참관수업일지 (4)

1. 20 년 월 일 교시
2. 수업과목 :
3. 수업진행교사 :
4. 수업진행교실 : 중, 고 학년 반
5. 참관교사 :

평가항목	평가내용
수업 시작 방법	
판서 및 자료 활용	
시선 처리, 성량, 언어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수업 내용 전달 (설명 방법, 난이도)	
수업 마무리 방법	
수업 시간 조정	

참관일지 5

참관수업일지 (5)

1. 20 년 월 일 교시
2. 수업과목 :
3. 수업진행교사 :
4. 수업진행교실 : 중, 고 학년 반
5. 참관교사 :

평가항목	평가내용
수업 시작 방법	
판서 및 자료 활용	
시선 처리, 성량, 언어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수업 내용 전달 (설명 방법, 난이도)	
수업 마무리 방법	
수업 시간 조정	

모의 수업 일지 1

모의수업 평가서 (1)

1. 20 년 월 일 교시

2. 수업과목 :

3. 수업진행교사 :

4. 수업진행교실 : 중, 고 학년 반

5. 참관교사 :

평가항목	평가내용
수업 시작 방법	
판서 및 자료 활용	
시선 처리, 성량, 언어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수업 내용 전달 (설명 방법, 난이도)	
수업 마무리 방법	
수업 시간 조정	

모의 수업 일지 2

모의수업 평가서 (2)

1. 20 년 월 일 교시

2. 수업과목 :

3. 수업진행교사 :

4. 수업진행교실 : 중, 고 학년 반

5. 참관교사 :

평가항목	평가내용
수업 시작 방법	
판서 및 자료 활용	
시선 처리, 성량, 언어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수업 내용 전달 (설명 방법, 난이도)	
수업 마무리 방법	
수업 시간 조정	

모의 수업 일지 3

모의수업 평가서 (3)

1. 20 년 월 일 교시
2. 수업과목 :
3. 수업진행교사 :
4. 수업진행교실 : 중, 고 학년 반
5. 참관교사 :

평가항목	평가내용
수업 시작 방법	
판서 및 자료 활용	
시선 처리, 성량, 언어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수업 내용 전달 (설명 방법, 난이도)	
수업 마무리 방법	
수업 시간 조정	

창고 1

교무부 조직

참고 2

6월 교사회의

2001. 6. 16. 토요일. 늦은 5시30분. 교무실. 사회: 변정민

1. 각반 생활 보고

- 중2(박용준, 이윤희)
- 중3(김광현, 변성연, 안주영)
- 고2(조영심, 이대열)
- 고3(서 경, 김규식)

2. 분과 보고

- 생활분과(이상민)
- 연구분과(김현희)
- 문화분과(권희원)
- 대외사업분과(황기연)

3. 총학생회 보고(임종일)

회계 보고(김선혜)
교무 보고(류영조)

4. 안건 토의

- ① 신입교사 교육팀 구성
- ② 신입생모집(7, 8월)
 - 방법
 - 일정
 - 관리 담당자(신입반 담임)
- ③ 푸른그루 교지반 구성
- ④ 교과서 구입
 - 담당자

5. 기타 안건

6. 7월 교사회의

7월21일(토) 사회: 변성연

교무일지

작성일자: 2001년 월 일 ()요일

수업진행상황							당직교사
학년	교시	수업시간		수업시행유무	수업변경 내용(발생시 작성)		
		과목	담당교사		정상수업이 안된 이유	대체교사	
중1	1교시						1. 교무일지 작성 (수업변경시 철자기록) 2. 교무실 청소, 정리 (끝까지 책임지고 쓸고, 밀결레 닦기)
	2교시						
	3교시						
	4교시						
중3	1교시						3. 전달사항 전화받기
	2교시						
	3교시						
	4교시						
고1	1교시						4. 학생분 관심갖기
	2교시						
	3교시						
	4교시						
고3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수업시행 유무기록		정상 수업: (○) 대체 수업: 사전에 변경사항이 충분히 알려진 경우 (○) 갑자기 대체된 경우 (△) 결강(자습): (×)					
남기고 싶은 말							

참고 4

수업 시간표

수업을 생명처럼 소중히 지킵시다. 2001. 06. 01.

	수업	월	화	수	목	금	토
중 학 교 2 학 년	1교시 7:30~8:10	수학 이순영	수학 이순영	가정 김자연	영어 권안식	캠풀 유경민	영어 박정은
	2교시 8:30~9:10	물상 김영준	영어 권안식	음악 양선애	교양 류영조	수학 김영준	미술 임근선
	3교시 9:30~10:10	한글 타리	사회 김선헤	수학 김영준	국어 이윤희	국어 최대천	사회 김선헤
	4교시 10:30~11:20	국사 박해원	국어 이윤희	영어 박정은	모둠 꼴동	도덕 박용준	한문 황기연
중 학 교 3 학 년	1교시 7:30~8:10	수학 안주영	물상 끔지은	캠풀 판성칠	가정 김자연	영어 한수정	사회 김현희
	2교시 8:30~9:10	국어 안주영	물상 끔지은	미술 임근선	도덕 이택룡	영어 한수정	수학 안주영
	3교시 9:30~10:10	한글 타리	사회 김현희	음악 변성연	영어 권희원	수학 유경민	한문 황기연
	4교시 10:30~11:20	영어 권희원	국사 김광현	국어 최대천	모둠 꼴동	수학 유경민	국어 안주영
고 등 학 교 2 학 년	1교시 7:30~8:10	과학 김영준	상업 김범석	영어 김기명	영어 김기명	국사 변경민	윤리 이대열
	2교시 8:30~9:10	미술 조영심	수학 목수진	사회 김명한	과학 김영준	국어 최대천	한문 황기연
	3교시 9:30~10:10	한글 타리	수학 목수진	국어 최대천	국어 박용준	영어 류영조	영어 류영조
	4교시 10:30~11:20	교양 오완진	지리 김현희	수학 박해원	모둠 꼴동	수학 박해원	국어 박용준
고 등 학 교 3 학 년	1교시 7:30~8:10	국사 변경민	영어 이대열	국어 최대천	윤리 이택룡	미술 신조일	수학 서경
	2교시 8:30~9:10	수학 서경	상업 이한태	음악 최민	수학 서대웅	과학 이상민	정경 김규식
	3교시 9:30~10:10	한글 타리	영어 이대열	국어 이기만	한문 황기연	국사 변경민	영어 이영준
	4교시 10:30~11:20	지리 김규식	수학 서대웅	과학 이상민	모둠 꼴동	국어 최대천	영어 이영준

교과목 강의평가서(교사용)

반(중·고)	교과목	강의교사	참관교사	참관 일자
				2001. . . 요일, 교시

1. 성량·시선·판서 등은 양호합니까?	5. 수업의 학습량과 시간배분은 적절합니까?
2. 수업에 대한 준비정도는 어땠습니까?	6. 교사와 학생간의 교감도는 어땠습니까?
3. 수업의 난이도 어땠습니까?	7. 이런 점은 좋습니다...(조언사항)
4. 학생들의 이해정도·반응은 어땠습니까?	8. 이런 점은 조금 개선 했으면...(조언사항)
총 평	

늘푸른배움터 상록학교

교과목 강의평가서(학생용)

※ 학생분께서 작성해주시는 이 강의평가서는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해당번호에 ○표시 해주세요.

- 본 교과목 강의평가서(학생용)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교과목 교사가 보관·참고용입니다.

반(종 · 고)	교과목	담당교사	작성일자
			2001. 요일. 교시

1. 교사가 수업에 성실하고 열의가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니다

2. 교사가 수업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니다

3. 교사의 수업 무단결강 사례가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니다

4. 목소리의 크기와 말하기 속도는 적당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니다

5. 교사가 시선을 학생분들에게 향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니다

6. 수업을 위한 교재 및 각종 자료를 잘 활용 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니다

7. 칠판글씨(노트필기)와 수업 내용 정리가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니다

8. 수업이 재미있고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니다

9. 수업 시작전 수업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수업목표에 맞게 수업을 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니다

10. 학생의 질문에 교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니다

본 과목 교사에게 말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써주세요.

참고 7

야학탐방 보고서

탐방야학	탐방교사	탐방일자	2001. . .
번호	구분	탐방일자	2001. . .
1	설립년도 · 배경 · 교육이념		
2	학생현황 (모집방법, 직업, 연령분포, 탈락률 등)		
3	교사현황 (모집 · 교육방법, 직업 · 연령분포, 근속연수 등)		
4	학생 · 교사 · 동문 조직체계		
5	공간문제 · 경제적인 문제 해결		
6	주요 학사일정		
7	학급운영 (담임, 출결, 성적 등)		
8	학생 · 교사 학교 생활문화 (고민, 상담, 진로, 생활 등)		
9	교과과정 및 교과목 외 수업		
10	대안교육 · 야학교육의 전망		

늘푸른 배움터 상록야학

참고 8

현직 교사 주소록

성 교사 주소록					
담당	이름	하는일	전화	E-mail	생년월일
교감	박학선				
교감	최대천				
교무	류영조				
국 어	안주영				
	이윤희				
	박용준				
	이기만				
영 어	한수정				
	권안식				
	박정은				
	김기명				
	권희원				
	이영준				
수 학	이대열				
	이순영				
	목수진				
	유정민				
	김도하				
	서 경				
국 사	서대웅				
	박해원				
	김광현				
	변경민				
사 회	김선혜				
	김현희				
	김명한				
	김규식				
과 학	김영준				
	공지은				
	편성칠				
	이상민				
음 악	양신애				
	변성연				
	최 민				
미 술	임근선				
	조영실				
	신조일				
살 업	김벌석				
	이현태				
가 정	김자연				
한 문	황기연				
문 리	이택룡				
교 양	오완진				
영어회화	이준호				
연극반	김신기				

... 시(詩) 사(詩) ...

그림자

국어교사 이윤희

검푸른 새벽녘 꿀목길에서
혼자 움직일 줄 모르는 그림자가
전봇대에 기대어 고개를 들었다

창백한 달빛을 보고
그림자의 얼굴 색을 살핀다
다시 반달을 보고
그림자 걸음을 알아난
움직이는 그림자를 찾는다
그림자는 손가락으로 반달을 그리고
새벽 하늘 위에 걸어 두었다

이젠 보름달이다
혼자 움직일 줄 모르는 그림자와
혼자 움직일 줄 아는 그림자가 만나지 못한
검푸른 새벽은 내일로 돌아갔다

창백한 얼굴을 살피는 그림자는
전봇대에 기대어 움직일 줄 모른다